홍일순(洪一純)

홍일순(洪一純, 1804년~1856년)은 조선시대 후기의 유학자로 15세(1818년) 때에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의 양자가 되었다. 어려서 부친과 절친한 오희상(吳熙常, 1763~1833)에게 글을 배웠으며 나중에 임헌회(任憲晦), 신응조(申應朝), 김평묵(金平默) 등과 교류하였다.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실패하고 성리학 공부에만 전념하였다.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 시흥현령(始興縣令), 과천현감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 『오곡집(鰲谷集)』4책을 남겼다.

1804년(1세, 순조 4년)

아버지 홍우필(洪禹弼)과 어머니 음성박씨(陰城朴氏)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 박씨는 박상한(朴相漢)의 딸이다. 본관은 남양(南陽,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일대)이며, 자는 헌문(憲文), 호는 오곡(鰲谷)이다.

1810년(7세, 순조 10년)

나중에 양부가 된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이 돈녕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였다. 홍직필은 아들 홍일한(洪一漢)이 있었는데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요절하였다. 딸은 민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

1814년(11세, 순조 14년)

홍직필이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에 임명되었다. 1822년에는 장흥고봉사, 1838년에는 이조 재학, 장악원주부, 황해도도사, 1840년에는 군자감정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1818년(15세, 순조 18년)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의 양자(養子)가 되었다.(『매산집(梅山集)』) 홍직필의 자는 백응(伯應)·백림(伯臨), 호는 매산(梅山)으로 서울 출신이다. 병마절도위 홍상언(洪尙彦)의 증손이며, 할아버지는 현감 홍선양(洪善養)이고, 아버지는 판서 홍이간(洪履簡)이다. 1801년 사마시에 응시하여 초시에 합격하였으나 회시에서 낙방한 뒤에는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오희상(吳熙常, 1763~1833)과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그로부터 성리학의 여러 주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저서로 매산집(梅山集)이 있다.

홍일순은 어려서 양부와 절친한 박윤원과 오희상에게 글을 배웠으며 나중에 임헌회(任憲晦), 조병덕(趙秉悳), 신응조(申應朝), 김평묵(金平默) 등과 교류하였다.

홍직필은 홍일순이 어렸을 때의 일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적이 있다. 시 제목은 '一純朝出江門不還終夕苦佇因之爲詩'(『매산집』권2)으로 그 내용은 '일순이 아침에 강문(江門)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므로, 저녁 내내 애타게 기다리며 시를 짓다.'이다. 아이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이 드러나 있다.

飛雪層冰江上村 눈 날리고 층층이 얼음이 언 강가 마을에
癡兒訪道丈人門 어리석은 아이가 도를 찾아 어른의 문하에 찾아갔네
白頭扶杖倚閭望 백발에 지팡이 짚고 마을 어귀에서 바라보니
夕鳥下庭山日昏 저녁 새 뜰에 내려오고 산의 해는 어둑어둑 해지네

홍일순에게 글을 가르쳤던 오희상은 당시 노량진 부근에 거처를 정하여 살고 있었다. 거기로 글을 배우러 간 아들 홍일순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홍직필이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을 시로 담은 문장이 또 한편 있다. 제목은 「待兒, 즉 '아이를 기다리며'(『매산집』권2)이다.

送子蘆漪去 아들을 노의선생(오희상)에게 보냈는데
淹遲反面行 돌아와 얼굴을 보여주는 걸음이 더디구나
冉冉黃昏近 어느덧 황혼이 가까우니
依依初月生 은은히 초승달 떠오르네
簷端白雲宿 처마 끝에는 흰 구름 머물고
庭際草蟲鳴 뜨락에는 풀벌레 우는구나
倚杖勞凝望 지팡이 짚고 애써 응시하며
衡門夕不扃 저녁에도 사립문 닫지 않노라

부친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홍일순은 경학과 성리학(性理學)에 조예가 깊었으며, 태극(太極), 도기(道器), 명덕(明德) 등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예를 들면 명덕론(明德論)에 대해서는 명덕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허령불매(虛靈不昧)하고 이치를 갖추어 온갖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마음(心)이라고 하였다. 이기설은 전적으로 율곡 이이(李珥)의 학설을 따랐다. 그는 이기론에 대해서, 리(理)의 근원도 하나이고 기(氣)의 근원도 하나이므로, 기가 이를 떠나지도 못하고 이도 기에서 떠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1844년(41세, 헌종 10)

선공감역(繕工監役)으로 제수되었다. 양부 홍직필이 당상관으로 공조참의에 임명되고, 또 나중에 동부승지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1845년(42세, 헌종 11년)

1월, 초사(初仕)로 가감역(假監役)에 임명되었다. 이후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 시흥현령(始興縣令) 등을 역임했다.

1848년(45세, 헌종 14년)

과천현감(果川縣監)을 지냈다.

1851년(48세, 철종 2년)

양부 홍직필이 대사헌에 임명되고, 다음해 지돈녕부사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1852년(49세, 철종 3년)

양부 홍직필은 이 해에 용인(龍仁) 충열사(忠烈祠)의 원장이 되었다. 7월에는 형조판서가 되었다. 그러나 홍직필은 6월부터 설사증을 앓다가 7월 17일에 경기도 노호(鷺湖)의 노의정사(蘆漪精舍)에서 사망하였다. 향년 77세 였다.

1856년(53세, 철종 7년)

이 해에 향년 53세로 사망하였다. 저서로 『오곡집(鰲谷集)』4책이 있다.

『오곡집』은 8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사본이고, 서문과 발문이 없다.

제1권에는 시 98수, 서(書) 10편이 실려 있는데 아버지 홍직필을 비롯하여 오희상, 조병덕(趙秉悳), 신응조(申應朝), 임헌회(任憲晦) 등 여러 학자들에게 인심(人心), 도심(道心), 태극, 도기(道器), 이기(理氣), 명덕(明德), 예설 등에 관하여 문답한 것이다.

제2권부터는 서 107편, 서(序) 1편, 제문 9편, 묘지 1편, 가장(家狀) 3편, 잡지(雜識) 1편, 그리고 부록으로 제문 2편, 묘갈명·묘지명·연설(筵說)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1885년(고종 22년)년에 조정에서 심순택이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이번에) 지평에 추증(贈職)한 신(臣) 심의덕(沈宜德)은 연전에 특별히 추증하여 포상을 하였는 바, 그는 일찍이 문경공(文敬公) 홍직필(洪直弼)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연원(淵源)이 순정(純正)하고 예학(禮學)에 해박하여 후학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고 현령(縣令) 홍일순(洪一純)은 문경공의 아들로 가학(家學)을 계승하여 독실하게 실천하였는데, 끝내 현감에 그쳐 그 깊은 학문을 펴지 못하여 사림(士林)이 지금까지도 애석해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처럼 순정한 학문과 행실은 마땅히 특별한 상전(賞典)이 있어야 합니다. 심의덕에게는 도헌(都憲)과 좨주(祭酒)를 더 추증하고 홍일순과 이의조에게는 특별히 참의(參議)와 좨주를 추증하여 장려하는 성상의 뜻을 보이시면 실로 밝은 시대의 풍속을 세우는 정사에 빛이 날 것이기에 아룁니다.” (『승정원일기』) 이에 임금은 건의한대로 실행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매산집』
전종헌,「홍일순」,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
이종덕,「홍일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8
이종덕,「오곡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

황재필(黃在弼)

황재필(黃在弼, 1847년 ~ 1893년)은 조선시대 말기의 학자로 일찍이 한문을 배워서 글재주가 있었으며 학문의 성취가 빨랐다.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실패하고 벼슬길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였다. 이후 스스로 경학연구에 전념하고 주위의 유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배움에 힘썼다. 그 아들이 황종관(黃鍾寬) 편찬한 시문집 『단파유고(檀坡遺稿)』 5권에는 그가 『논어』, 『맹자』 등을 연구하여 서술한 「의(疑)」와 200편에 가까운 시문이 실려 있다.

1847년(1세, 헌종 13년)

의금부도사 황은섭(黃殷燮)과 연안김씨(延安金氏) 김정(金鋌)의 딸 사이에 전라북도 고창 성내면 대천리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평해(平海)이며, 자는 양언(良彦), 호는 단파(檀坡)이다. 안촌(安邨) 황이후(黃以厚) 후손이다. 황이후는 이괄(李适)의 난 때 의병을 일으켜 군량(軍糧)을 모아 병영에 보내고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전주에서 기의하여 공훈을 세웠다.

그는 어려서 집안의 할아버지 저파공(樗坡公) 밑에서 글을 배웠다. 재주가 있어 학문 성취가 빨랐으며 집안에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여러 번 과거에 실패하였다. 계속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자 벼슬길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경학(經學) 연구에 전념하였다. 곽기옥(郭琦玉), 서문백(徐文伯), 김성도(金聖道), 민승호(閔升鎬) 등 인근 유림들과 교류하면서 시문을 짓고 서신을 왕래하였다.

그는 『논어』, 『중용』, 『대학』 등 사서(四書)에서 의심나는 대목을 뽑아서 스스로 답하고 여러 학자의 설을 이용하여 고증한 뒤, 의(疑)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문장들은 그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예(禮)에 대하여도 일가견을 가지고 제도를 연구하고 설명을 붙였으며, 후학 양성을 위해서 강석(講席)을 마련하여 경전과 예법을 강의하였다. 향음주례(鄕飮酒禮)를 직접 시행하기도 하였다.

1893년(47세, 고종 30년)

동학(東學)이 일어나 마을사람들 가운데 가담하는 자가 많아졌다. 황재필은 그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사람들을 모아 난에 가담하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향년 47세로, 이 해에 사망하였다. 저서로 『단파유고(檀坡遺稿)』 5권이 있다. 『단파유고』는 1929년에 아들 황종관(黃鍾寬)이 부친의 시문을 모아 간행하였는데, 5권 2책으로 구성되어있다. 목활자본이며, 권두에 백낙규(白樂奎)의 서문이 있

다. 권말에 종제(從弟) 황재용(黃在涌)과 김재준(金在駿), 고광두(高光斗), 황종관(黃鍾寬) 등의 발문이 있다.

권1·2에는 시(詩) 136수, 서(書) 10편, 서(序) 4편, 기 1편(「시은기(市隱記)」), 제문 2편(「제김진사문(祭金進士文)」외 1편), 축문 8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3·4에는 잡저 7편이 들어있는데, 「유건설(儒巾說)」, 「단설(檀說)」, 「과정문견록(過庭聞見錄)」, 「장남종관혼서(長男鍾寬婚書)」, 「차남종국혼서(次男鍾國婚書)」 등이 실려있다. 이중에 「유건설(儒巾說)」은 선비들이 쓰고 다니는 두건을 설명한 것이으로 그 제도와 유래, 사용처 등을 밝혔다. 「과정문견록(過庭聞見錄)」은 자신의 아버지 황은섭(黃殷燮)의 일상생활과 언행을 기록한 것이다.

또 의(疑)가 15편 수록되어 있는데, 「대학문제(問題)」 2편, 「중용문제」 2편, 「맹자문제」 3편, 「논어문제」 8편이 있다. 이것은 황재필이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 유교 경전을 공부하다가 생각나는 의문점에 대하여 여러 설을 이용하여, 풀이하고 자기의 견해를 덧붙인 것이다.

권5는 부록으로 행장, 묘갈명, 향천장(鄕薦狀), 도천장(道薦狀), 단파정상량문(檀坡亭上樑文), 단파정운(檀坡亭韻) 98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황재필의 문장은 실려 있지 않다.

1930년에, 황재필의 아들 황종관(黃鐘寬)은 부친을 기리기 위해서 단파정(壇坡亭)을 건립했다. 그리고 1939년에 영석재(永錫齋)를 건립하였는데, 이 두 문화재는 고창 성내면 대천(大川)마을에 있다. 원래 단파정은 황재필이 살았던 시기에 지어졌으나 없어지고 아들이 다시 세운 것이다. 하지만 현재 보이는 단파정은 1930년대에 지은 단파정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지은 것이다. 지금 모습은 정자 중심에 팔각정의 방이 있다.

대천마을은 신대리에 속해 있는데 신대리는 행정구역 개편 전의 이름으로 원래는 신정리(新亭里)와 대천리(大川里)로 구성된 마을이다. 신정리의 '신(新)'자와 대천리의 '대(大)'자를 따서 '신대(新大)'가 된 것이다. 이곳은 조선 중기 평해황씨(平海黃氏)가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이루어졌다. 본래는 흥덕군(興德郡) 이동면(二東面)의 지역이다. 이후 1914년 4월 1일에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봉서리(鳳西里), 대천리, 해평리(海坪里), 신정리, 옥교리(玉橋里)의 각 일부와 이서면(二西面) 왕동(王洞)이 병합되어 신대리가 되었고, 성내면에 편입되었다.

<참고문헌>

권호기, 「황재필」,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6

권호기, 「단파유고」,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

윤종호,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대리」,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오인교, 「南道 정자기행(2629)-고창 단파정(檀坡亭)」, 한국매일, 2015.10.28

김제겸(金濟謙)

김제겸의 묘지와 묘비(경기도 여주)

김제겸(金濟謙, 1680년~1722년)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동지중추부사 김광찬(金光燦)의 증손자이고,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의 손자로, 숙종 때 영의정을 역임한 김창협(金昌協)의 아들이다. 본관이 안동인 이들 집안은 대대로 높은 관직을 역임하였으나 당파 싸움의 화를 입어 김수항 이하 김제겸의 아들 김성행까지 4대가 불행한 죽임을 당했다.

김제겸은 40세(1705년) 때 병과로 급제하고, 사간원(司諫院)의 정언, 사간, 예조참의, 승지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1722년에 부친 김창협이 연잉군 왕세제 책봉문제와 관련되어 신임사화로 유배를 당한 뒤 사약을 받고 사망하고, 자신의 아들 김성행도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다 요절하는 불행을 겪었으며, 자신도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사망하였다.

1680년(1세, 숙종 6년)

아버지 김창집(金昌集, 1648년~1722년)과 어머니는 박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창집의 자는 여성(汝成), 호는 몽와(夢窩)이며, 동지중추부사 김광찬(金光燦)의 손자이다. 또한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의 아들로 영의정을 역임한 인물이며, 저서로 『국조자경편』과 『몽와집』이 있으며, 김창협(金昌協)과 김창흡(金昌翕)의 형이다. 부인은 박세남(朴世楠)의 딸이다.

김제겸은 어려서 작은 아버지 김창흡(金昌翕)에게 글을 배웠다.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는 필형(必亨), 호는 죽취(竹醉), 충민(忠愍)이다.

1681년(2세, 숙종 7년)

부친 김창집이 내시교관에 임명되었다. 부친은 1672년(현종 13년)에 진사시에 합격했다. 1675년에 그의 부친 김수항(김제겸의 할아버지)이 귀양을 가자 과거 응시를 미뤘었다.

1684년(5세, 숙종 10년)

공조좌랑이었던 부친이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부친은 정언(正言)·

병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김제겸의 부친 김창집(金昌集)

1689년(10세, 숙종 15년)

기사환국 때 할아버지 김수항이 진도의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사망하였다. 부친은 귀향해서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영평(永平)에 은거하였다.

1694년(15세, 숙종20년)

갑술환국으로 정국이 바뀌어 부친이 복권되었다. 부친은 이 해 병조참의, 동부승지, 참의, 대사간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그 뒤 철원부사에 임명되었을 때, 큰 기근으로 도둑이 들끓어 소란하자 관군을 이끌고 토벌하였다. 이후 강화유수, 예조참판, 개성유수 등을 역임하고, 호조, 이조, 형조의 판서 등에 임명되었다.

1696년(17세, 숙종22년)

부인 송씨와 사이에 아들 김성행(金省行)이 태어났다. 자는 사삼(士三), 호는 취백헌(翠柏軒)이다.

1705년(26세, 숙종 31년)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부친은 지돈녕부사를 거쳐 이듬해 한성부판윤, 우의정, 좌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1710년(31세, 숙종 36년)

세마(洗馬)에 임명되었다. 이어서 고양 군수를 거쳐 사복시첨정(司僕寺僉正)으로 재직하였다.

1712년(33세, 숙종 38년)

부친 김창집이 청나라에 사은사 사신으로 갔다가 이듬해 돌아왔다.

1717년(38세, 숙종 43년)

부친이 영의정에 취임하였다.

1719년(40세, 숙종 45년)

증광 문과에 도전하여 병과로 급제하고, 정언(正言)에 임명되었다. 정언은 사간원(司諫院)의 정육품(正六品) 관직이다. 위로 대사간(大司諫), 사간(司諫), 헌납(獻納)이

있다. 나중에 김제겸은 헌납(獻納)으로 승진하였다가, 집의(執義)·응교(應敎)·교리(校理)·사간·예조참의·승지 등을 역임했다.

1721년(42세, 경종 1)

부친이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상소했으나, 소론의 격렬한 반대로 실패하였다. 이후 소론이 탄핵 운동을 벌여 노론이 축출되고 소론이 정권을 장악했다.

부친 김창집(金昌集)은 이건명, 이이명, 조태채 등과 함께 세제 연잉군의 대리청정을 주장한 노론파 4 대신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소론이 정권을 잡은 뒤, 소론 김일경(金一鏡), 목호룡(睦虎龍) 등이 탄핵하여 유배를 당했다. 이어 소론은 노론파가 반역을 도모를 했다고 무고하여 신임사화(辛壬士禍, 신임옥사辛壬獄事)가 발생하였다. 신임사화는 경종이 즉위한 해부터 다음 해 1722년까지 노론과 소론이 연잉군 왕세제 책봉문제로 충돌한 사건이다. 부친은 이일로 거제도에 유배(위리안치)되었다.

1722년(43세, 경종 2년)

부친이 유배를 당한 성주에서 사약을 마시고 사망하였다. 이에 김제겸도 울산에 유배된 뒤에 부령(富寧)으로 옮겨졌다가 사형을 당하였다.

부친 김창집은 1724년에 복권되었으며, 영조는 과천에 사충서원(四忠書院)을 세워 이이명·조태채·이건명과 함께 배향했다. 부친의 저술로『국조자경편(國朝自警編)』·『몽와집(夢窩集)』등이 있다.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김제겸은 조성복(趙聖復), 김민택(金民澤)과 함께 신임사화로 희생된 삼학사(三學士)의 한 사람으로 꼽혔다. 그는 저서로『죽취고(竹醉藁)』, 편저로『증보삼운통고(增補三韻通考)』를 남겼다.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3년 뒤(영조 1년)에 관작이 복구되고,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김제겸의 아들 김성행도 같은 해에 화를 당하였다. 향년 27세였다. 아들 김성행은 서덕수 등과 함께 경종 때에 영잉군(영조)을 추대하려고 하였는데, 목호룡(睦虎龍)이 상소를 올려, 임금을 시해하려는 역적 무리 중 한사람으로 지목하여 관청에 잡혀 들어가 심문을 당하였다. 그는 심문 도중,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절개를 지켰으나, 거듭되는 고문으로 매를 맞다 요절하였다. 이러한 일로 왕세제 연잉군(뒷날의 영조)은 그 지위를 온존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김성행이 죽은 날은 5월 9일이었다. 김성행은 3년 뒤, 신원이 회복되었으며, 이후 지평, 이조참의, 이조참판 등에 추증되고, 충정(忠正)이라는 시호를 하사받았다. 영잉군이 1724년 영조로 등극한 후, “종사(宗社)가 오늘날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김성행의 힘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영조는 직접 김성행의 제문(祭文)을 지어 추도하였으며, 김성행을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하고 충신 정려를 하사하였다.

김성행의 아들 김이장(金履長)은 나중에 음보로 관직에 진출하여 장악원정(掌樂院正)을 역임하였다.

김제겸은 살아생전에 아들 김성행이 옥중에서 매를 맞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유배지 울산에서 새로운 유배지인 함경도 부령으로 가는 도중에 잠시 아들 묘소에 들러 다음과 같은 묘지문을 적어 아들에게 고하였다.

“유세차, 1722년 임인(壬寅) 유월 갑인(甲寅) 삭(朔), 초 7일 경신(庚申)날에 아버지는 죽은 아들 성행(省行)의 묘 앞에서 고하노라. 아아, 슬프구나. 나의 아들은 어질었도다. 나의 아들 너는 능히 목숨을 바쳤구나. 돌아가신 아버님을 보고 이를 따랐으니, 이 완고한 마음은 즐거울 뿐, 슬프지 않구나. 나는 지금 북쪽으로 옮겨가니, 죽고 사는 것을 기약할 수 없어, 너의 무덤 풀밭에 술을 뿌린다. 이 슬픔, 말로 다할 수 없으니, 아 울고 싶구나. 나의 아들아, 오래도록 편안하여라. 흠향하소서.”

3대가 같은 해에 사망한 이들의 묘지는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에 나란히 마련되었다. 김제겸의 조부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1629년 ~ 1689년)도 기사환국(己巳換局) 때, 진도에 유배를 당하여, 1689년 4월 진도에서 사약을 받고 사망하였다. 한집안의 4대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참고문헌>

오갑균, 「김제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병섭, 「김성행」,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신임사화 노론 안동 김씨 세장지」, http://blog.daum.net/yacho2011/2006

강경희(姜敬熙)

강경희(1858년~1922년)는 고종 22년(1885년)에 증광시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참의, 병조참의,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 사간원 대사관 등을 역임하였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궁내부에 재직하면서, 고위 관직을 두루 거쳤는데, 시대가 바뀌어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친일활동을 하였다. 특히 이완용과 가깝게 지내면서,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자원 제공을 받은 친일 유림의 공자교 운동에 적극 참여한 바 있다.

1858년(1세, 철종 9년)

강문형(姜文馨)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강문형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를 역임한 무인이었다. 3남 중 차남으로 위로는 형 강민희(姜敏熙), 아래로는 동생 강돈희(姜敦熙)가 있다. 나중에 강만형(姜晩馨)의 양자가 되었다. 강경희의 자는 성일(聖一)이고, 호는 유당(有堂)이다. 전라북도 옥구군 출신이며, 본관은 진주(晉州), 본적은 경성부(京城府, 지금의 서울) 남부(南部) 회현방(會賢坊, 지금의 명동, 회현동 일대)이다.

1885년(28세, 고종 22년)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에 30등으로 합격하였다. 증광시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행하는 특별 과거시험으로 시험과정은 생진초시·생진복시·문과초시·문과복시·문과전시의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시험과목은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행하는 식년시(式年試)와 같다. 강경희는 이 시험에 도전하여 문과에 급제한 뒤, 형조참의, 병조참의 등을 지냈다.

1890년(30세, 고종 27년)

승정원에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있었다. 원래 승정원은 국왕의 직속 기관으로 왕명의 출납, 즉 임금의 명령을 바깥으로 전달하고 조정 대신들의 보고나 요청, 의견 등을 임금에게 전달하는 비서기관이다. 그러나 당시 서울에 우레가 있자 동료들과 함께 임금에게 경계의 글을 올렸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지금 우레의 재변(災變, 기상이변)을 초래한 원인을 생각하다가 마침 그대들이 올린 글의 내용을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더욱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1891년(34세, 고종 28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에 임명되었다. 사간원은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는 곳으로 '간쟁(諫諍)'을 주요 업무로 삼는다. 간쟁이란, 윗사람의 옳지 못한 일을 지적하여 잘못을 고치게 하는 일이다. 임금이 정치를 잘못하거나, 행동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잘못을 말하여 고치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첨예한 정치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신하들의 잘못을 탄핵하는 기능도 겸했다. 요즘의 감사원이나 언론기관의 역할에 해당한다. 사간원에는 대사간(大司諫), 사간(司諫), 헌납(獻納), 정언(正言) 등이 있는데, 우두머리인 대사간은 정3품, 사간은 종 3품이다.

1897년(40세, 광무 원년)

이해 10월 고종이 원구단(圜丘團)에서 천제를 올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그 전까지 조선의 국왕은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중국의 천자만이 그러한 행사의 자격이 있다고 여겨져 왔으나 과감히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것이다. 아울러 고종은 연호를 광무(光武)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 칭호를 사용하였다. 11월에 명성황후 국장(國葬)을 치렀다.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강경희는 이후 대한제국 시절에 주로 궁내부에 재직하였는데, 중추원의관, 비서원승, 전선사장선, 시강원부첨사, 규장각부제학, 중추원참의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1899년(42세, 광무 3년)

정부에서 헌법인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하였다. 여기에 황권의 절대성을 명시하고, 황제가 전권을 장악한 전제군주제를 추구하였다.

1904년(47세, 광무 8년)

2월 23일,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 한반도와 만주의 패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였다. 8월,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와 재정 등 각 분야에 고문을 두고 내정 간섭을 하였다.

1905년(48세, 광무 9년)

일본이 러일 전쟁에 승리하였다. 일본은 이해 11월, 제2차 한일 협약 성립을 성립시키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나아가 한국 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정치를 추진했다.

1907년(50세, 융희 1년)

주임관 2등에 올라, 시강원에서 근무했다. 이해에 친일 유림단체인 대동학회에 가담했다. 이해 황태자 즉위식이 있었다. 강경희는 대거(對擧) 부첨사(副詹事)로서 즉

위식을 준비하는데 공을 세우고 여러 관리들과 함께 임금이 내린 상을 받았다.

1908년(51세, 융희 2년)

대동학회 평의원이 되었다.

1909년(52세, 융희 3년)

이해에 경제연구회(회장 김재순)에 가입했으며, 대동학회가 재편된 공자교회에 가담했다. 대동학회는 유교 계열의 친일단체로 박은식, 장지연 등이 반일의 기치를 내걸고 대동교를 결성하자, 유림(儒林)을 기반으로 공자교회로 변신, 개편했다. 공자교회는 '유도(儒道)의 진흥과 인도(仁道)를 밝힘'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자금의 지원을 받았고, 당시 총리대신인 이완용과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의 도움을 받았다. 이들의 주요 활동은 유교 경전의 번역 추진, <대한매일신문> 매입 등이었다. 이후 강경희는 이완용이 주도한 국민연설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국민협성회의 한일 합방실행 추진단체인 한국평화협회에서 자선부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1910년(53세, 융희 4년)

8월, 한일 합방조약이 강제 조인되어 대한제국이 멸망하였다. 당시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은 이완용, 일본 측 한국 통감은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1852~1919)였다. 이 두 사람이 담합하여 강제로 조약을 통과시킴으로써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일합방 추진에 적극 가담한 자들은 이완용 외에도 박제순(외부대신), 이지용(내부대신), 이근택(군부대신), 권중현(농상공부대신) 등이 있었다. 이들은 을사오적이라 불린다.

당시 황현, 민영환 등이 자결하고 많은 지식인들이 극렬히 반대하였으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만주로 도망가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강경희는 한일합방 추진에 적극 가담했다.

1911년(54세)

조선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 찬의로 임명되어 이후 10여년간 활동을 하였다.

1915년(58세)

경기도 시흥군 동면의 공동묘지 용지를 조선총독부에 기부하여 일본으로부터 사례로 나무 잔을 받았다.

1922년(65세)

향년 65세로 사망했다. 2002년에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2006년 친일 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 106인 명단

에 포함되었다.

<참고문헌>

김은지,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고종실록』, 『순조실록』, 『조선총독부관보』
「친일반민족행위자 106인 확정・발표」<프레시안> 2006.12.06.

김영상(金永相)

김영상(金永相, 1836~1911)은 조선시대 말엽의 유학자로 일본의 강압적인 한일합방에 저항하였다. 을미사변 때에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두문불출하였고, 1906년경에는 임병찬, 최익현 등과 한일의병운동을 주도하였다. 조선이 멸망한 뒤에는, 일본의 유화정책을 거부하고 "원수와는 한 하늘아래 같이 살수 없다"며 저항하다 옥중 단식 중 사망하였다. 저서로 『춘우정문고(春雨亭文稿)』가 있다.

1836년(1세, 헌종 2년)

지금의 전라북도 고부(古阜) 산북리(지금의 정읍시 정우면)에서 부친 김경흠(金景欽)과 모친 나주 오씨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조선 개국의 원종공신(原從功臣) 김회련(金懷鍊)의 후손이다. 호는 춘우정(春雨亭), 자는 승여(昇如)이며, 승화(昇和)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였다. 본적은 전라북도 정읍(井邑)이며, 본관은 도강(道康)이다. 도강은 현재의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으로, 1895년(고종 32년) 탐진현(耽津縣)이 합쳐져 강진군이 되었다.

1851년(16세, 철종 2년)

가족을 따라 태인(泰仁) 고현내면 원촌으로 이주해 살았다. 이곳은 조상 대대로 살던 세거지였다. 이후 줄곧 태인에 거주하며 활동하였다.

1853년(18세, 철종 4년)

집안의 아저씨에 해당하는 이재 김인흠(肄齋 金麟欽)에게 글을 배웠다.

1858년(23세, 철종 9년)

집안의 할아버지인 비인재 김기(卑忍齋 金暨)에게 글을 배웠다.

1871년(36세, 고종 8년)

미국 함선이 조선에 들어와 공격을 받은 신미양요(辛未洋擾) 사건이 일어났다. 이해 스승 비인재의 소개로 노사 기정진을 만났다. 이후 전주 출신의 간재 전우와도 자주 교류를 하였다. 당시 기정진과 전우는 전라도 지방의 대표적인 유학자들이었다.

1885년(50세, 고종 22년)

50세의 나이에 익산에 사는 인산 소휘면(仁山 蘇輝冕, 1814~1889)을 스승으로 모셨다. 당시 그는 폐백(幣帛)을 가지고 가서 경의를 표하고 제자의 의례를 한 뒤에 소휘면과 사제관계를 맺었다. 소휘면은 일찍이 젊었을 때부터 학문으로 주변에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 1881년에 선공감가감역, 전설시별제(典設寺別提), 전라도사 등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1882년 역시 사헌부지평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오직 후학의 양성에 힘을 기울인 인물이다.

1895년(60세, 고종 32년)

10월 8일 경복궁에서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게 암살된 사건이 일어났다.(을미사변 乙未事變) 12월에는 단발령이 내려졌다. 이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일본의 침략을 개탄하며 두문불출하였다.

1906년(71세, 광무 10년)

이해에 치욕적인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돈헌 임병찬 등이 이 무성서원에서 항일의병을 일으킬 때(병오창의) 같이 참여하여 성명문을 낭독하였다. 이후 석지 채용신, 면암 최익현, 돈헌 임병찬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제의 침략에 맞섰다. 이 가운데 채용신(蔡龍臣, 1850년~1941년)은 무과에 응시하여 급제하고 관료생활을 하였는데, 1905년 이후에는 그림만 전문적으로 그리던 사람이었다. 그는 김영상을 그린 그림을 남겼다. 면암 최익현이 이 해에 대마도에서 순절하였다.

1907년(72세, 광무11년, 융희 원년)

시산리 대주평(지금의 칠보초등학교 자리)에 태산사(台山祠)를 세우고 면암 최익현의 영정을 모셨다. 유림들의 요청을 따라 태산사 상량문을 짓고, 태산사에 한동안 머물렀다. 이후 태산사는 일제 탄압으로 훼손되었다가 1975년 시산사(詩山祠)로 이름을 바꾸어 원촌마을 산중턱에 중건되었다.

1910년(75세, 융희 4년)

이 해 나라를 일본에 내준다는 양국조서(讓國詔書)가 내렸다.(한일합병) 조선이 멸망하여 나라 안의 국민들이 온통 비통스러워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전국의 유학자 100명에게 노인 은사금을 내렸다. 그러나 김영상은 은

사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거절하였다.

전해오는 말로 당시 은사금을 가지고 온 일본 순사를 향하여 “내가 일본 국왕의 간을 씹어 먹어야 하는데 그리 못하니 대신 너라도 먹어야겠다.”고 하면서 그의 팔뚝을 물어뜯었다고 한다.

채용신이 그린 김영상의 투신 모습(投水圖)

1911년(76세)

계속되는 일제의 유혹을 뿌리치고 면장을 통해 내려온 은사금 사령서를 찢어버렸다. 4월에 불경죄를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산외면 동곡 헌병대에 구금되었다.

5월 6일 동국 헌병대를 떠나 군산형무소로 이송 도중 만경강을 건너다가 손자에게 절명시를 남기고 투신하였다.(일설에는 감옥에서 순절하기 전에 남겼다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昔屈子之精忠 그 옛날 굴원은 사심 없는 충정으로
指汨羅而爲期 멱라수에 몸을 던져 한 생을 마쳤다.
今春雨余陽九 이제 나는 양구를 뒤로하고
從沙津而逝斯 사진을 떠나 여기에서 작별한다.
酌椒酒之三桮 향기로운 술 세잔을 따라
慰魚腹之忠魂 고기 뱃속의 충혼을 위로하고
踵東海之高蹈 제나라 사람 노중연(魯仲連)의 길을 따라
永陟江於干磐 영원히 물가를 오르내리리.

김영상이 투신한 직후 일본 헌병이 급히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구조하였다. 이후 군산 형무소 감옥에 수감된 뒤, 단식하던 중 5월 9일 사망하였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었으며 1978년 6월 전북지방의 인사들이 발의하여 그가 투신을 시도하였던 창사진 나루터인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에 춘우정 투수 순절 추무비(春雨亭 投水 殉節 追慕碑)를 세웠다.

저서로 『춘우정문고(春雨亭文稿)』(1961년 필양사(泌陽祠) 발간)이 있다. 이 책은 6권 3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자의 사진, 글씨 등이 실려 있으며, 제 1권에는 부(賦)와 시(詩), 제2권에는 서(書)와 기(記), 발(跋), 설(說), 논(論), 잠(箴), 소(疏) 등이 실려 있고, 제3권에는 상량문(上樑文), 제문(祭文), 비(碑), 묘갈명(墓碣銘), 행장(行狀), 유사(遺事), 잡저(雜著) 등이 실려 있다. 나머지는 제6권까지 부록이다.

<참고문헌>

김정자, 「인물 생애 정보 - 김영상」,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이종근, 「춘우정 김영상(1836~1911)」, 새전북신문, 2011.11.16
「채용신의 <항일지사 김영상 투수도>」, 김달진미술연구소, http://www.daljin.com/column/1120
류우현, 「청하면, 김영상 선생 투수비 환경 정비」, 전북중앙신문, 2017.5.29
「전북의 항일운동가-'원수랑 함께 할 수 없다' 순절한 춘우정 김영상」, 전북도민일보, 2017.07.19

전우(田愚)

전우(田愚, 1841～1922)는 조선 시대 말엽에 활동한 유학자로 임헌회(任憲晦, 1811～1876)의 제자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서울에서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기호학파의 학자들과 교류를 하였으며 학문적으로 율곡에 연원을 두게 되었다. 특히 낙론 계열의 학맥을 계승한 임헌회와 사제관계를 맺게 되어 낙론의 영향을 받고, 율곡과 송시열의 사상을 추앙하고 옹호하였다.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 시기를 대표하는 그는 저서로 『간재집』, 『간재사고(艮齋私稿)』, 『추담별집(秋潭別集)』, 『안자편(顔子篇)』, 『연원정종(淵源正宗)』 등을 남겼다.

1841년(1세, 헌종 7년)

8월 31일에 전주부(全州府) 서문(西門) 밖 청석동(靑石洞)에서 아버지 청천(聽天) 전재성(田在聖)과 어머니 남원 양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이름은 경륜(慶倫) 혹은 경길(慶佶)이며, 자(字)는 자명(子明), 호(號)는 간재(艮齋)이다. 구산(臼山), 추담(秋潭), 담주(潭州) 등의 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본관(本貫)은 담양(潭陽)이다.

1846년(6세, 헌종 12년)

집안이 비교적 넉넉하여 일찍부터 글을 배웠는데, 이 해에 『소학(小學)』을 공부하였다.

1849년(9세, 헌종 15년)

아버지의 명으로 화분에 피어있는 매화를 보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聽雪鼓絃琴韻冷 눈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거문고 뜯으니 운율이 싸늘하고
看花題句墨痕香 꽃을 보며 시를 적으니 먹의 흔적에서 향기가 나는 구나.

1852년(12세, 철종 3년)

왕희지(王羲之)의 필법(筆法)을 익히기 시작했다. 글쓰기 실력이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하였으나 '말엽적인 기술에 머물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여 나중에 그만 두었다.

이즈음 사서오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해에 사서오경을 모두 독파하였다.

1854년(14세, 철종 5년)

가족을 따라 서울 정동(貞洞), 삼청동(三淸洞), 순화동(順化洞) 등으로 옮겨 살면서 학문 공부를 하였다.

1858년(18세, 철종 9년)

밀양 박효근의 딸과 결혼하였다. 스승 임헌회가 효능참봉(孝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임헌회는 그 다음해에 활인서별제(活人署別提), 전라도사 등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1859년(19세, 철종 10년)

책을 들고 입산하여 학문에 심취하였다. 특히 시문에 일가를 이룬 뒤, 능숙한 문장 솜씨로 그의 명성이 주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860년(20세, 철종 11년)

이해에 최제우가 경주에서 동학을 창시하였다. 전우는 퇴계(退溪)의 글을 읽고 학문에 뜻을 두게 되었다.(일설에는 학문에 뜻을 두고 퇴계집을 읽다가 유학의 근본인 위기지학爲己之學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나중에 그는 "내가 20세에 비로소 『퇴계집』을 읽고 느낀 바가 있어서 뜻이 간절하던 차에, 퇴계 선생의 현몽으로 학문의 방향을 잡게 되었다"고 술회하였다.

1861년(21세, 철종 12년)

신응조(申應朝)의 소개로 전재(全齋) 임헌회(任憲晦, 1811~1876)를 만나 그의 학문을 배워 계승하였다. 임헌회는 이 해에 조정의 경연관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사양하였다. 임헌회는 홍직필(洪直弼)의 제자로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다. 낙론(洛論)의 대가로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같다는 낙론의 입장을 고수하고, 율곡 이이(李珥)와 우암 송시열(宋時烈)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이기론에서도 전우는 스승 임헌회의 영향을 받아 '성은 바로 기(性卽氣)'이며, '기는 바로 성(氣卽性)'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기유위무위변(理氣有爲無爲辨)」에서 태극은 리만 있고 동정(動靜)의 능력이 없으며 음양이 동정한다고 보고, 리를 무위(無爲)한 것, 기를 유위(有爲)한 것이라 정의했다. 이를 인간에 적용시켜 성(性)은 무위한 것이며, 심(心)은 유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시 주리론(主理論)의 관점을 가진 기정진(奇正鎭)이나 이항로

(李恒老)를 비판했다.

또 이이의 '기발이승설(氣發理乘說)'을 계승하였는데, 이(理)는 무위(無爲)이며 실지로 모든 작용은 기(氣)가 주체가 되어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율곡의 '명덕은 단시 본심일 뿐(明德只是本心)'이라는 주장을 이어받아 '심은 바로 기(心卽氣)'이며 '명덕은 기라는 설(明德是氣說)'을 주장하고 '심즉리(心卽理)'설을 반대했다.

나아가 율곡의 '심위기주(心爲氣主)' 사상을 확대하여 '심본성(心本性)', '심학성(心學性)'을 주장하였으며, '성은 존귀하며 마음은 비루하다(性尊心卑)', '성은 선생이며 마음은 제자이다(性師心弟)' 등의 새로운 학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주자가 말하기를 성은 태극이라 하였고 심(心)은 음양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태극은 마땅히 높은 것이고 심과 음양은 마땅히 낮은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보면 성은 스승이고 심은 제자라는 것은 주희의 설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새로 창시한 것이니 의리가 지극히 정미한 것이며 절실한 공부이며 이것이 스스로 만든 심제(心弟) 두 글자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우는 낙론 계통의 학설을 발전시켜 '미발기질체청설(未發氣質體淸說)'을 창안하였다. 이렇게 전우는 주자가 '성은 즉 리(性卽理)'라고 하여, 인간의 성을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여겼다는 점을 강조하고 율곡의 학설을 철저하게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1863년(23세, 철종 14년)

우의정 박규수(朴珪壽)의 추천으로 보양관(輔養官)에 천거되었으나 왕의 승낙을 얻지 못하였다. 이 당시 진사 최한기(崔漢綺, 1803년 ~ 1879년)가 육왕학을 칭찬하고 또 일본 학자가 주자 학설을 비난한 일을 칭찬하자, 그를 타이르는 시를 지었다.

1865년(25세, 고종 2년)

가족이 임헌회가 있는 공주(公州)의 명강(明剛)으로 이사하자, 매일 스승을 찾아가 모셨다. 조정에서 만동묘(萬東廟)의 제향을 폐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스승 임헌회는 그러한 조치의 부당함을 상소하여, 다시 제향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1866년(26세, 고종 3년)

이 해 병인양요가 있었다. 조선의 천주교 탄압을 구실로 프랑스가 함대를 보냈다.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 함대 7척은 천주교 신부를 살해한 자에 대한 처벌과 통상조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대원군은 그 요구를 묵살하고 무력으로 대항했다. 결국 프랑스 해군은 40여 일 만에 퇴각했다. 프랑스는 실지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조정의 쇄국정책은 더 강화하였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유림에서는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기

정진(奇正鎭)과 이항로(李恒老)가 척화(斥和)의 상소문을 올렸다.
다음해 4월 어머니 양씨와 아버지 청천공이 잇달아 세상을 떠났다.

1869년(29세, 고종 6년)
이기설(理氣說), 음양설(陰陽說), 정시기질설(靜時氣質說) 등을 지었다.

1870년(30세, 고종 7년)
스승 임헌회가 왕을 알현한 뒤, 전우를 추천하였다. 스승의 명으로 『오현수언(五賢粹言, 다섯 현인들의 아름다운 말씀)』14권을 지었다. 이 책은 도학의 의리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동방의 오현, 즉 조광조(趙光祖), 이황(李滉), 이이(李珥), 김장생(金長生), 송시열(宋時烈)의 문집에서 좋은 문장을 모은 것이다.
다음해 미국이 1866년 대동강에서 침몰한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함대를 파견하여 조선을 공격하였다. 강화도에 침입한 미군을 조선의 관군과 백성이 맞서 싸워 격퇴하여 40여일 만에 물러갔다.(신미양요)

1874년(34세, 고종 11년)
스승 임헌회는 이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을 표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그 뒤에도 대사헌, 좨주 등에 임명되었다.
이 전해부터 전우는 이항로의 제자 유중교(柳重敎)와 서한으로 '심성이기태극설(心性理氣太極說)'에 관한 논쟁을 시작하였다. 이 논쟁에서 그는 심성과 이기, 태극과 명덕의 본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는데, 서신의 왕래가 이후 14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1876년(36세, 고종 13년)
이 해에 일본과 강화도조약(한일수호조약)을 체결하였다. 전년에 일본은 운양호사건을 일으키고 조선의 개항을 강요한 바 있었다. 강화도 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문화를 개방하고 서양의 열국과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약에 반대하여 이만손(李晩孫) 등이 만인소(萬人疏)를 올려 개화를 반대하였다. 나중에 중암(重庵) 김평묵(金平默), 최익현(崔益鉉) 등도 지속적으로 개화 반대를 호소했다. 특히 최익현은 일본과 서양은 한 몸이라고 주장하는 '왜양일체론'을 펴면서 개화를 거부했다.
이 해에, 시국을 걱정하여 내방한 김평묵(1819~1891)과 심성의 문제를 토론하였다.
이해 2월, 스승 임헌회가 공주 삼기(三岐)로 이사하여, 새로 집을 짓고 마을 이름을 성전(星田)이라 하였다. 전우 가족도 그곳과 가까운 연기(燕岐) 죽안(竹岸)으로 이사하고 임헌회를 모셨다. 이해 스승 임헌회가 사망하였다. 임헌회는 저서로『전재집』20권이 있다. 사망하기 직전 스승은 전우에게 뒷일을 부탁하였는데, "김평묵이 율곡학설을 공공연히 비판하고 새로운 학설로 후진을 선동하니 그대가 이를 반박한

뒤에 도리가 밝아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유중교(柳重敎, 1832-1893)의 『성재집』에 임헌회에 보낸 글이 나온다.

“은거지를 새로 정하시어 가옥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풍토와 세상인심이 예전과 비교해 어떠신지요? 전자명(田子明, 즉 전우田愚)이 식솔을 데리고 이끌고 따라갔으니 강론하는 즐거움이 마땅히 예전과 같을 것입니다. 기대를 가질 만한 젊고 뛰어난 사람들을 몇 명이나 얻으셨는지요?”

전우가 스승을 따라서 이사한 소식이 주변에 널리 알려진 것이다. 허전은 편지에서 계속 자신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썼다.

“저는 2월에 가평군 화악산(華岳山)의 남쪽인 조종천의 북쪽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샘과 돌의 정취와 꽃과 나무의 즐거움에 평소 품었던 생각이 그런대로 위안되었습니다. 다만 선생님과의 거리가 몇 사(舍, 병사가 하루에 걷는 거리, 즉 약 30리를 말함) 정도 더 멀어져 안타까운 감회가 더욱 간절합니다. 일명(一命)의 은택을 받았으나 분수를 헤아리니 황송하여 몸 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평소에 글을 읽었지만 알맹이도 없고 한갓 글만 읽는 척하였는데 저의 이름이 갑작스레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국의 일은 금수가 사람을 핍박해서 조금씩 더 심해집니다. 통곡하고 길게 외쳐본들 어찌하겠습니까.(이하 생략)”

세상의 변화에 대한 한 유학자의 무기력감이 짙게 배여 있다.

1878년(38세, 고종 15년)

충북 음성(陰城) 삼현(三峴)으로 이사하였다. 「주재설(主宰說)」, 『讀中庸首章說』을 지었다.

유중교가 전우의 행동에 대해서 불쾌하게 평가한 내용이 그의 서신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전우(田愚)에 관한 일은 역시 사문(斯文)의 일대 변괴입니다. 그 사람의 재능과 식견은 그다지 엉성하지도 않은바, 크게 사문의 복은 되지 못하고, 크게 사문의 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깊은 걱정거리입니다. 일전의 한 통 편지는,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로 분쟁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제가) 사람이 미천하고 말이 가벼워서 힘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한스럽습니다. 형께서는 그와 더불어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되었기에 한마디 가르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세상은 넓고 인물은 많으니,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좋게 보지 않으면 그만이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하시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형께서는 평소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화할 수 없음을 보고서 그런 말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비는 나의 일과는 상관이 없으니 그들이 제멋대로 하더라도 내버려 두고 자신의 느긋하고 편안히 즐기는 계획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까? 전자일 것 같으면 이 사람을 위해 실망됨이 더욱 심하고, 후자일 것 같으면 형을 위해서도 유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 어진 사람이 타인을 대할 때는 그 마음 씀씀이가 이처럼 괄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합니까?”(『성재집』, 「서여심께 답함(答徐汝心)」

(1878년, 10월　戊寅十月)

유중교가 말하는 '전우에 관한 일'은 김평묵의 임헌회 제문과 관련된 일을 말한다. 전 해에 임헌회가 사망 한 뒤 제사를 지낼 때, 전우는 내용상 어떤 문제 때문에 김평묵(1819년~1891년)이 지은 제문을 문제시 했다. 그리고 전우는 임헌회의 아들인 임진재(任震宰)와 함께 김평묵에게 편지를 보내어 절교를 선언하고 제문을 돌려보냈다. 이일을 유중교는 '사문' 즉 유림의 일대 변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느낀 전우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서여심에게 표현한 것이다.

1882년(42세, 고종 19년)

이 해에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조선은 미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과는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청나라와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전우는 영의정 홍순목(洪淳穆)의 천거로 선공감(繕工監)의 가감역(假監役)과 감역(監役), 전설사 별제(典設司 別提)와 강원도 도사(江原道 都事)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이후 상주(尙州)·장암(壯岩)·문경(聞慶)·진천(鎭川)·만죽(晩竹)·문천(文泉) 등을 옮겨 다니면서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1894년(54세, 고종 31년)

이해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조선에 출병하여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7월에 정부에서는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한편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민씨정권을 축출한 뒤, 흥선대원군을 추대하였다. 김옥균이 상해에서 살해당했다.

전우는 사헌부 장령(司憲府 掌令)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895년(55세, 고종 32년)

친일 개화론자 박영효(朴泳孝)가 전우를 수구파 학자 중 우두머리로 지목하고 고종에게 개화를 실현시키려면 그를 죽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건의하였다. 하지만 고종은 전우를 순흥 부사(順興 府使), 중추원 찬의(中樞院 贊議) 등에 임명하였다. 전우는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10월,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게 시해(弑害) 당했다.(을미사변) 전우는 상소문을 올려 역적 처벌을 주장했다.

1896년(56세, 고종 33년)

이 해에 시민사회단체인 독립협회가 설립되고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

조정에서 개혁을 단행하여 의복 간소화를 추진하고 단발령(斷髮令)을 내리자 전우는 통곡하면서 모든 자손과 제자들에게 의복과 상투를 죽음으로 지킬 것을 명하였다. 아울러 단발을 행한 제자 1,000여 명을 자신의 문인록(門人錄, 제자 명단)에서 삭제하였다. 이 해 7월 최명희가 주선하여 충청도 태안의 근흥면에서 후진 교육에

힘썼다.

1897년(57세, 고종 34년)

대한제국이 탄생하였다. 고종은 국내외에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포하고, 국호를 대한, 연호를 광무, 왕을 황제라 칭하였다. 서대문에 있던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웠다. 영은문은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던 모화관(慕華館) 앞에 세운 문으로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한 것이다.

1899년(59세, 대한제국 광무 3년)

그동안 서산과 태안 지역에서 후진 양성에 힘쓰다 공주 금곡(金谷)으로 이사하였다.

1901년(61세, 광무 5년)

'심본성설(心本性說)'을 발표하고 세상의 유학자들이 마음을 리로 알고 본성을 근본으로 삼지 않는 오류를 지적하였다. 또 '양명심리설변(陽明心理說辨)'을 지어 왕양명의 '심즉리설(心卽理說)'을 배척하였다.

1903년(63세, 광무 7년)

스승의 명으로 편찬한 『오현수언(五賢粹言)』을 다시 정리하여 글을 쓰고 합철하였다.

1905년(65세, 광무 9년)

일본과 조선 사이에 을사보호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다. 전우는 두 차례에 걸쳐 상소문(「청참오적(請斬五賊)」)을 올려 을사오적을 처단하고 조약 파기를 요구하였다. 이어서 「포고천하문(布告天下文)」, 「경세문(警世文)」 등을 지어 이토 히로부미를 탄핵하였다. 이에 친일파 조정 대신들은 전우를 죽이도록 고종에게 건의하였으나, 고종은 "너희들은 짐에게 선비를 죽인 누를 입게 하려 하느냐."고 하였다.

1906년(66세, 광무 10년)

고부에서 36책의 『간재사고(艮齋私稿)』를 정리하였다. 겨울에 중추원 부찬의(副贊議)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이해 2월경에 최익현(면암, 1834년~1907년)이 편지를 써서 호남에서 의병을 일으키려고 하니 참가해줄 것을 부탁했으나 전우는 거절했다. 최익현은 을사조약 이후, 일본사람들에게 저지되어 상경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송병선(宋秉璿, 호는 淵齋)이 순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람마다 죽기만 하면 누구를 의지하여 국권을 회복할 것인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사람은 마땅히 마음을 합치고 힘을 뭉쳐 불에서 구해 내고 물에서 건져

내는 것처럼 서둘러야지 일각도 잠자리에 편안히 있을 수가 없다."(『면암집』 부록 제4권 「연보」)

그리고 의병을 계획하고 이용원(李容元, 판서), 김학진(金鶴鎭, 판서), 이도재(李道宰, 관찰), 이성렬(李聖烈, 참판), 이남규(李南珪, 참판), 곽종석(郭鍾錫, 호는 俛宇), 그리고 전우(田愚)에게 편지를 보내 함께 국난을 구하자고 권한 것이다. 하지만 호응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최익현은 "함께 일을 계획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인심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내가 사방을 둘러보아도 궁박하여 갈 곳이 없다.'는 말과 같다."고 탄식했다. 그는 나중에 결국 임병찬(林炳瓚)・김기술(金箕述)・유종규(柳種奎)・김재귀(金在龜) 등과 의병을 일으켰다.

1907년(67세, 융희 1년, 순종 1년)

4월, 퇴계의 묘소와 구택, 도산서원 등을 방문하였다. 6월, 바다로 나갈 것을 계획하고 태안으로 갔다. 8월, 안민도로 가서 망명할 장소를 살피고 돌아왔다.

1908년(68세, 융희 2년, 순종 2년)

9월, 나라가 망하더라도 도학(道學)을 일으켜 국권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망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변산반도 앞에 있는 위도 서쪽의 왕등도(旺嶝島)로 들어갔다. 당시 그는 "공자는 춘추전국시대의 어지러운 세상에서 "도(道)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였으니 나도 바다로 가겠다!"고 하였다. 당시 전우는 기울어져 가는 나라에 대한 걱정과 함께 개화파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에 대해서 몹시 절망한 상태였다. 그는 태안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섬에서 살고자 하며 안민도(安民島)로 옮기려고 하였다.

전우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간재는 죽기가 무서워 의병을 일으키지 못했고, 화가 미칠까 두려워 외세를 배척하지 못하였다."(김평묵金平默)라고 비판했다. 또 나라가 망해가는 데도 외면하고 스스로 도학군자만을 자부한다고 비판하였다.

전우는 이러한 비판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입장을 적극 변호하는 글을 써서 『추담별집(秋潭別集)』으로 묶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보인다.

"국권을 회복한다고 하면서 외세와 손잡게 되면 이는 나라를 회복하기 이전에 내 몸이 먼저 이적이 되는 것이니 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500년 종사도 중요하지만 3,000년의 도통(道統)을 잇는 것이 더 소중하니 무가치하게 목숨을 버리지 말고, 학문을 일으켜 도(道)로써 나라를 찾아야 한다."

"을사년의 수치에도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모든 선비는 마땅히 피를 토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고 살 수밖에 없으나, 눈앞의 위태함만을 알고 나라의 참된 힘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총칼 앞에 헛되이 목숨을 버리는 일일 뿐이니, 차라리 몸과 마음을 올바로 가다듬어 신명을 얻어 학문을 열심히 닦아 뜻을 편다면 1년, 2년, 10년, 20년 어느 때인가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

다.”

이 당시 대한제국에서 활동하던 영국인 신문기자 베델(Ernest Thomas Bethel, 어니스트 토머스 베델, 대한제국의 성명: 배설裵說, 1872년~1909년)이 매일신문 논설에서 조선의 유림과 자신을 비판하자 반박문을 써서 제자들에게 돌렸다.

1909년(69세, 융희 3년)

제자들의 간청으로 군산도(群山島) 구미촌으로 거처를 옮겼다.

매천 황현(黃玹)의 이즈음 쓴 시들이 「기유고(己酉稿)」(『매천집』제5권)에 실렸는데, 「해학(李沂의 호)을 곡하다(哭海鶴)」란 시가 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歷落嶔奇七尺身 탈속하고 기이했던 칠 척의 몸
風霜到老足悲辛 풍상에 늙어 슬프기도 하네
依劉歲久難爲客 희생한 세월 오래여도 객이 되기 어려웠고
買沃山荒不救貧 사서 가꾼 산이 거칠어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네
蔡澤入秦還有數 채택이 진나라 갈 때는 운이 따라 주었지만
宋牼之楚奈無人 송경이 초나라 갈 때는 사람이 없는 걸 어쩌랴
吁嗟志大終難遇 아아, 뜻은 컸지만 끝내 지우(知遇)를 얻지 못하고
五石空瓠孰復珍 다섯 섬이나 되는 빈 박을 누가 다시 귀하게 여길고
長途萬里恣奔馳 만리 먼 길을 마음껏 내달리니
要是龍駒不可羈 말하자면 준마(駿馬)라 매 놓을 순 없었겠지
義檄風生才薄試 의병 격문 지을 적에 비로소 약간 시험했고
剃刀雪落老逾奇 흰머리 단발하니, 늙을수록 기이 했네
……

전우는 이 시를 읽고 이렇게 비판했다.

“근래에 이기(李沂)라는 자가 있어서 시문에 능하였는데, 아비가 죽었을 때 상복을 버리고 검은 옷을 입었으며, 연전에 학보(學報)에서는 사람들에게 독서하지 말 것을 권하면서 즐겨 유림(儒林)을 욕하였다. 이 자야 진실로 나무랄 것이 못 되나, 마침내 어떤 문사(文士, 즉 황현)가 그 사람에 대한 만사(輓詞)를 지으면서, ‘흰머리 단발하는 등, 늙을수록 기이했네.(剃刀雪落老愈奇)’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가소롭다.”(『艮齋集』 後編 續 卷4 答孫周夏)

이기(李沂, 1848~1909)는 노년에 자진해서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었다. 그는 조선 말기의 문인이자 독립운동가이며, 계몽운동가였다. 자는 백증(伯曾), 본관은 고성(固城), 전북 김제(金堤)의 몰락한 양반 집안 출신이었다. 시(詩)에 재능이 있어 이름을 날렸으나,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한 뒤에는 실학자들의 저술 연구에 전념하였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문명을 경험하고 단발을 하였다.

귀국 후 한성사범학교 교관을 지냈으며 1906년(광무10년)에 장지연(張志淵) 등과

함께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를 조직하고 계몽활동을 하였다. 아울러 을사오적의 처단을 위해 자신회(自新會)를 조직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노력하다 체포되어 전라도 진도(珍島)에 유배되었다가 1년 뒤에 풀려났다. 석방 후 서울로 돌아와 호남학회(湖南學會)의 간부로서 글을 발표하는 등 계몽활동을 하였다. 1909년(융희3)에는 단군교(檀君敎) 창립에 가담했고, 그해 7월 서울의 한 여관에서 사망했다. 저서로는 《해학유서(海鶴遺書)》가 있다.

1910년(70세)

4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를 지어 찬양했다.

8월, 한일합방의 소식을 들었다. 전우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제자들과 산에 들어가 수일간 침식을 잊고 통곡하다가 다시 왕등도로 들어갔다. 그리고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여 조선 사람으로 자처하면서 일본인들을 상대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자 하였다. 그는 도가 땅에 떨어진 세상에 국권을 회복하고 난정(亂政)을 바로잡아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할 힘과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세상을 등지고 자연에 은둔하면서 유교의 학문을 전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것을 무시하였다.

1911년(71세)

11월, 경무부의 고등관으로 있는 일본인이 경비선을 타고 왕등도에 들어와 전우의 동태를 살폈다. 당시 전우는 벽에 '만겁이 흘러도 나는 끝까지 한국의 선비요, 평생을 기울여 공자의 제자가 되리라(萬劫終歸韓國士, 平生趨付孔門人)'라는 시를 적어 놓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그 일본인은 진짜 한국의 선비를 만났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1912년(72세)

제자들의 간청에 따라 왕등도에서 나와 군산도에 머물었다. 다시 부안의 계화도(界火島, 혹은 界華島)에 정착하고, 그곳을 '중국문화를 계승한다.'는 뜻의 계화도(繼華島)라 불렀다. 이후 제자들의 도움으로 『간재문집』을 완성하였다.

다음해 『기질체청설(氣質體淸說)』을 지어 기질의 본체는 원래 청명하고 순수하다고 주장하였다.

1914년(74세)

섬에 들어온 이후의 감상을 적은 『해상산필(海上散筆)』을 완성하였다. 이 가운데는 한주 이진상의 '심즉리설'에 대한 변론도 들어 있다.

다음해 「해옥병어(海屋病語)」를 저술하고, 정세영 등이 제시한 '성리수기이품설(性理髓氣二稟說)'을 반복해서 분석했다. 그 다음해에 「성존심비적거(性尊心卑的據, 성

은 존귀하고 마음은 비루한 증거)」를 지었다.

1918년(78세)

손자를 불러서, “나는 한국의 유민으로서 어찌 타국에 입적(入籍)하겠는가. 너도 죽을지언정 도장을 찍어 입적을 해서는 안 된다.(吾以韓國遺民, 豈肯入籍於他邦, 汝雖死不可奈章)”라는 글을 써주고 왜나라 사람이 되지 않도록 당부 하였다.

아울러 이 해에 「양가심성존비설(兩家心性尊卑說)」을 지어 유가는 하늘을 근본으로 삼는 학문인데 반하여 다른 학파, 즉 양명학파는 마음을 근본으로 삼는 학문이라고 설명하였다.

1919년(79세)

1월 고종이 승하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 황제만세를 부른 뒤, 삼년상의 상복을 입기 시작했다. 조긍섭은 적에게 항복한 임금을 위해서 복(服)을 입을 수 없다며 상복 입기를 거부하였는데, 여러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였다. 전우도 그를 ‘적(賊)’이라고 지목하여 성토하였다.(조긍섭의 암서집)

3·1 독립만세 사건이 일어난 직후, 명망 있는 각 지역의 유림(儒林) 137명이 파리평화회의에 보내는 장문의 문서(巴里長書)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한국 유림대표 곽종석, 김복한 등 137인은 삼가 파리평화회의 여러분께 이 글을 올립니다. 천하 만물이 함께 자라 세상을 크게 밝히니 이게 바로 진리일진대, 대소의 형세가 다르다 해서 남의 생명과 남의 나라를 해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하늘이 여러분을 보내어 대동의 세계를 만들게 할지니, 먼저 우리의 억울함을 살펴주소서. 아! 한국이 문명국임은 다 아는 사실이나 힘이 약하여 일본의 침략을 받았으니 지금부터 그 행위를 폭로하겠습니다.(이하 생략)”

당시 유림은 영남학파와 기호학파로 나뉘어 서로 경쟁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모두 함께 단합하여 호소하였으나 전우는 이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크게 비판했다. 원래는 맹보순(孟輔淳)을 중심으로 한 유림 수천명이 전우를 대표로 파리평화회의에 독립을 탄원하는 문서를 보내자는 운동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그는 처음에는 대한제국의 황제를 복위시키고 유교가 국가이념이 되는 일이라면 자신의 육신이 조각난다 해도 파리에 갈 수 있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이러한 뜻을 번복했다. 그는 일이 자신이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진행된다고 주장하고 서명도 거부하였다.

1920년(80세)

당시 동아일보 사장이었던 박영효가 주자학의 의리를 비판하자 그를 적극 성토하였다. 전우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자신의 성리학을 구축한 비판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김창협(金昌協) 사상을 비판한 『농암사칠의의(農巖四七疑義)』(1918년), 기정진(奇正鎭)의 「외필(猥筆)」을 비

판한 「외필변(猥筆辨)」, 이항로(李恒老)의 사상을 비판한 「화서아언의의(華西雅言疑義)」(1881년), 이진상(李震相) 사상을 비판한 「이씨심설조변(李氏心說條辨)」(1911년) 등이 있다. 그는 오직 율곡과 송시열의 사상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통적인 도학의 중흥만이 일본에게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1922년(82세)

제자들이 수집한 원고를 교정하여 간재문집 후고를 완성하였다. 이해 7월 4일 82년의 생애를 마쳤다. 장례식에는 2000여명이 그의 영구를 따랐고, 6만 여명이 넘는 인파가 그의 마지막 모습을 참관했다고 한다. 전북 익산의 선영에 묻혔다. 이후 계화도의 계양사(繼陽祠), 의령의 의산사(宜山祠), 고창의 용암사(龍巖祠), 정읍의 태산사(台山祠) 등에 제향되었다.

그의 제자는 이병은(李炳殷), 성기운(成璣運), 정형규(鄭衡圭), 송기면(宋基冕), 권순명(權純命), 유영선(柳永善), 오진영(吳震泳), 김준영(金駿榮), 김택술(金澤述) 등 3,0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간재학파라고 불리는 학파를 형성하였다.

<참고문헌>

오종일, 「전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
태안문화원, 「간재(艮齋) 전우(田愚)선생」, 충청남도문화원, 2016.5.24
박희우, 「파리장서(巴里長書)를 아시나요?」, 오마이뉴스, 2005.3.1
최전율, 『간재의 성리학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4

김정희(金正喜)

김정희(金正喜, 1786년~1856년)는 조선시대 후기의 북학파 실학자이자 서예가이며 화가이다. 고증학자이기도 하며, 우리나라 금석학의 개조로 평가되기도 한다.

젊어서 중국 연경(북경)에 사신의 일행으로 따라가서 당시 청나라의 명사들이었던 옹방강(翁方綱), 완원(阮元) 등과 교류하고 금석학을 배워,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하였으며, 예술가로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옛 비문을 보고 스스로 추사체를 완성하였다.

그는 30대 중반에 과거에 합격하였다. 하지만 집안 대대로 높은 관직을 역임하였고 임금의 외척이었으며, 외가 역시 노론의 명문이었기 때문에 병조참판, 이조참판 등 높은 관직에까지 올라 출세하였다. 그러나 50대 중반부터는 당파싸움에 휘말려 집안이 몰락하고 10년 넘게 귀양살이를 하는 등 불우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의 예술적인 성과인 추사체는 바로 이러한 환경이 낳은 성과이기도 하였다.

1786년(1세, 정조 10년)

6월 3일, 충청도 예산현(지금의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서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지낸 아버지 김노경(金魯敬)과 어머니 기계(杞溪) 유씨(兪氏) 사이에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일설에는 장자) 본관은 경주, 이름은 정희(正喜), 자는 원춘(元春), 호는 추사(秋史), 완당(阮堂), 예당(禮堂), 시암(詩庵), 과파(果坡), 과노(果老), 농장인(農丈人) 등을 사용하였다.

고조할아버지 김흥경은 영의정을 지냈고, 증조할아버지 월성위 김한신(金漢藎)은 영조 임금의 사위가 되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의 추사 고택은 증조할아버지가 지은 집이다. 외가는 노론의 명문으로 함경도관찰사를 지낸 유한소(兪漢蕭)가 외증조부이며, 문장과 서예로 유명한 유한준(兪漢雋), 유한지(兪漢芝)가 그의 4촌, 6촌 형제이다.

1788년(3세, 정조 12년)

동생 김명희(金命喜)가 출생했다. 재취부인 예안 이씨도 이해에 출생하였다. 할아버지 김이주(金頤柱)가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1790년(5세, 정조 14년)

큰아버지 김노영(당시 44세)이 외교사절단 사은부사로 북경에 갔다. 이해 여름에 박제가(朴齊家, 당시 41세)가 진하사 수행으로 북경에 가 완원(阮元), 손성연(孫星衍) 등과 교류하였다.

1791년(6세, 정조 15년)

이 무렵(일설에는 1793년경) 아들이 없던 큰아버지 김노영(金魯永)의 양자가 되어 서울(당시의 한성부)로 상경했다. 이해에 실학자 박제가가 김정희의 <입춘첩>을 보고 장차 크면 이 아이를 가르치고 싶다고 하였다. 나중에 박제가는 실지로 중국에 가서도 김정희를 자신의 제자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다음해 채제공(蔡濟恭, 당시 73세)도 김정희의 <입춘첩>을 보고 장차 글씨로 이름날 것을 예언하였다.

1793년(8세, 정조 17년)

양아버지 김노영이 개성유수가 되었다. 그러나 11월경 옥사 사건을 잘못 다스려 파직되었다. 다음해 김노영은 공금을 함부로 빌려준 일로 유배되었다. 7월, 막내동생 김상희(金相喜)가 출생했다.

1797년(12세, 정조 21년)

큰아버지이자 양부인 김노영(향년 51세)과 할아버지 김이주(향년 68세)가 사망했다. 이해에 종형(從兄, 사촌형) 김관희(金觀喜)도 향년 25세로 사망하였다.

1800년(15세, 정조 24년)

한산이씨 이희민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아내와는 나이가 같았다. 박제가에게 사사하였다. 그에게 북학파의 사상을 배우고 박지원의 학풍을 계승하였다. 이해 6월 정조가 사망하고 순조가 즉위하였다. 7월부터 대왕대비 정순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시작하였다. 정순왕후는 김정희의 11촌 대고모에 해당하는 친척이었다.

1801년(16세, 순조 1년)

8월, 친어머니(생모) 유씨의 상을 당했다. 향년 34세였다. 박제가 북경에 가서 옹방강(翁方綱)과 면담하였다. 옹방강은 일찍이 『사고전서(四庫全書)』의 편찬에 관여한 학자로 경학(經學)에 정통하였으며, 금석문과 서화, 시문에 능하였다. 청나라 때에는 성리학과 양명학, 즉 송나라와 명나라 사상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옹방강은 모두 거부하지는 않고 절충하는 입장을 가졌다. 이러한 입장은 김정희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2월에 정약용이 유배되었다. 9월에는 박제가가 유배당했다.(이후 1804년에 풀려났다.) 다음해 안동김씨 김조순의 딸이 왕비로 책봉되었다.

1805년(20세, 순조 5년)

전해에 정순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거두었는데, 이해 1월 61세로 사망하였다. 대비 상을 당하여 홍천현감 김노경(김정희의 친부)이 종척집사(宗戚執事)가 되었다.

2월, 부인 한산 이씨의 상을 당하였다.(향년 20세) 이해에 박제가(朴齊家)가 사망하였다. 향년 56세였다. 이해에 김노응, 김노경이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즈음 양어머니가 사망하였다.

1808년(23세, 순조 8년)

양어머니의 삼년상이 끝나고, 예안(禮安) 이씨 이병현의 딸을 새 아내로 맞이했다.

1809년(24세, 순조 9년)

9월, 친아버지 김노경이 호조참판이 되었다. 11월, 생원시에 1등으로 합격했다. 12월, 친아버지(생부) 김노경을 따라 북경에 갔다. 아버지는 당시 동지 겸 사은부사의 직책이었다. 양부가 사망한 뒤로 추사는 부친을 모시고 살았다.

1810년(25세, 순조 10년)

1월에 북경에서 완원(阮元, 당시 47세)과 옹방강(翁方綱, 당시 78세)을 만나 사제의 의를 맺고 고증학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옹방강으로 부터 편액을 받았다. 완원으로부터는 그의 저서와 『심삼경주소 교감기』등을 기증 받았다. 완원은 경학의 대가였는데, 김정희가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과 고증학적인 학문 세계를 구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들 외에 북경에서 여러 명사들을 만나 교류하였다. 북경에서 옹방강과의 만남은 김정희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가 귀양살이를 할 때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평생에 두 사람의 선생으로부터 배운 것을 잊을 수가 없는데 한 분은 완원이고 다른 한 분은 옹방강이다. 완원 선생께 배운 것은 남이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나 또한 그렇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고, 옹방강 선생께는 평생 경을 떠나지 않는 것이 경학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중에 박규수는 추사의 글씨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여러 번 변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젊어서는 동기창의 글씨를 따랐었고, 중년에 중국에 다녀온 후에는 옹방강의 글씨를 열심히 써서 쓸데없이 기름지고 두껍다는 흠이 있었다. 그러다 중년을 지나면서 중국의 구양순을 비롯한 여러 대가의 글을 다 익히더니 만년에 제주도 귀양살이로 바다를 건너갔다 돌아온 다음부터는 여러 대가의 장점은 모아서 스스로 일법을 이루게 되니 신이 오는 듯 기가 오는 듯 바다의 조수가 밀려오는 듯하였다.”

이해 3월, 동생 김명희의 부인 은진 송씨가 사망하였다.(향년 21세) 3월에 북경에소 돌아와 입조(入朝)하였다. 다음해 부친 김노경이 예조참판으로 승진하였다.

1815년(30세, 순조 15년)

옹방강과 편지를 교환하면서 경전의 연구의 지도를 받았다. 옹방강과는 북경에서 돌아온 뒤로도 지속적으로 편지와 선물을 주고 받았다. 옹방강에게는 김정희와 같은 나이의 아들(옹수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 해에 죽어 부음을 알려왔다. 옹방강은 아들을 대신할만한 젊은 학자 섭지선(葉志詵, 당시 37세)을 소개해주었다. 이 섭지선과 김정희는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 받았다. 이해에 수락산 학림암에서 초의선사와 처음 만나 친구로 사귀었다. 부친 김노경이 경상감사가 되었다.

1816년(31세, 순조 16년)

고증학에 흥미를 느끼고 7월, 김경연과 함께 북한산 비봉에 있는 비석이 진흥왕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을 짓고,「이위정기(以威亭記)」를 지었다. 옹방강이 청나라에서 긴 편지와 함께 자신의 시집과『소재필기(蘇齋筆記)』(1, 2권)를 보내왔다. 일전에 김정희가 옹방강에게 고경(古鏡)과 탁본들, 그리고『퇴계집』,『율곡집』, 일본의 구각(舊刻), 그리고 중국에서 구할 수 없는 묘품(妙品) 인삼 등을 보냈는데 그에 대한 감사의 글도 함께 왔다.

1817년(32세, 순조 17년)

6월, 조인영과 북한산비를 다시 방문하고 비석의 글씨를 살폈다. 측실(側室)에게서 아들(庶子) 김상우(金商佑)를 얻었다. 옹방강이『소재필기』제3권을 보내왔다.

1818년(33세, 순조 18년)

1월에 옹방강이 사망했다. 향년 86세였다.

「가야산해인사중건상량문」을 지었다. 2월, 부친의 근무지 대구 감영에서 장동 본가에 있는 부인 예안 이씨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글 편지를 썼다.

“지난번 대구로 내려오는 중간에 보낸 편지는 보셨소? 그 사이 대구로 내려오는 인편이 있었는데, 당신 편지를 못 보았소. 부끄러워서 아니하셨소? 나는 마음이 심히 섭섭하오. 그동안 편안히 지내시고, 대소 연고 없고, 집안단속과 예의범절은 착실히 잘 하고 있소? 사랑방의 동네 일꾼들이 아직 떠나지 않고 있다 하오? 일념이 놓이지 아니하오며, 나는 오래간만에 친 아버지를 모시고 지내니 든든하여 기쁘기 한이 없어 그걸 어찌 다 적소? 그 길에 천리나 주유(周遊)하여 흙탕길과 험로에 무수히 고생하고 대구에 14일 만에 득달하여 왔사오니, 쉰지 3일이로되 너무 피곤하여 못 견디겠소. 오늘 저녁이 (전부인 한산 이씨) 제사인데, 형님께서 멀리서 오시고, 뒷집 동생은 들어와 같이 지내는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걱정이오며……”(김경순, 117쪽 참조. 일부 문장 수정함. 이하 같음.)

이해에 그는 이러한 편지 외에 여러 편(총 11편)의 편지를 부인과 주고받았다.

11월, 부친 김노경이 병조참판이 되었다. 12월, 김노경이 이조참판이 되었다가 이어서 예문관 제학에 임명되었다.

1819년(34세, 순조 19년)

1월, 부친 김노경이 공조판서가 되었다가 3월에 예조판서가 되었다.

이해 4월에 함께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급제하였다. 집안이 왕실과는 외척관계였기 때문에 그의 과거 합격은 왕실의 경사이기도 하였다. 이 때 그는 조정의 허락을 받아 증조할아버지 월성위 내외 묘에 제사를 드렸다. 친구 조인영도 이 때 같이 합격하였다. 이후 세자시강원설서, 예문관검열 등을 지냈다.

1820년(35세, 순조 20년)

5월, 양자로 삼은 13촌 조카가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 상우를 위해 『동몽선습(童蒙先習)』을 정자체로 썼다. 섭지선이 중국에서 동지사 편으로 원나라 사람의 그림과 책자를 보내왔다. 이해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출생했다. 다음해 부친 김노경은 이조판서가 되었으며, 섭지선이 중국에서 서적과 탁본 자료를 보내왔다. 주달은 조맹부의 책 (『前後赤壁賦帖』) 2권을 보내왔다.

1823년(38세, 순조 23년)

3월 부친 김노경이 중국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왔다. 부친이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가, 공조판서에 임명되었다. 김정희는 4월에 「석견루노사시권(石見樓老史詩卷)」을 지었다. 이해 8월, 규장각의 대교(待敎)가 되었다.

1824년(39세, 순조 24년)

부친 김노경이 과천에 별서(別墅, 농막)로 과지초당(瓜地草堂)을 지었다. 12월 부친이 형조판서가 되었다. 김정희는 창림사탑에서 출토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고증하였다.

1826년(41세, 순조 26년)

1월 중국에서 섭지선이 단옥재의 서적 30권 15책을 보내왔다. 6월에 충청우도 암행어사로 임명되었다. 가는 길에 안동김씨 비인(庇仁, 지금의 충남 서천군 비인면 지역) 현감 김우명(金遇明)을 봉고(封庫) 파직하였다. 이일로 김우명과는 정적관계가 되고 집안이 화를 당하는 계기가 되었다.

1827년(42세, 순조 27년)

4월에, 부교리, 의정부 검상(檢詳)에 임명되었다. 10월에 예조 참의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3일 만에 물러났다. 섭지선에게 글씨와 서책, 옛 비석의 탁본 등을 보냈다.

1828년(43세, 순조 28년)

3월, 부인 예안 이씨가 온양의 친정 집에 머물고 있어 장동 본가에서 다음과 같이 한글로 편지를 보냈다.

“그렇게 가신 후에 다시 소식이 막히니 그 사이 (친정 어른을) 모시고 한결같이 평안하시오? 한해 만에 어른을 모시고 지내시니 오죽 든든 하리오만, 노친네 형편은 어떠시오? 염려 내려놓지 못하오며 당신은 어떠하오? 또 병 때문에 불편하게 지내지 아니 하였소? 잊혀지지 않아 걱정이 놓이지 못하오며 나는 아버님이 감기가 계속 낫지 않아 대단히 불편하게 지내시니, 속이 타고 안타까우니 어찌 다 적소. (중략) 종시 낫지 못하시니 이렇게 마음이 초조하고 급하오. 나도 이때 까지 낫지 못하고 독감을 또 얻어 대단히 앓았더니 수일이야 조금 낫사오나 기운 수습이 어렵사오니 답답하오.……”(김경순, 151쪽)

한 달 정도 뒤에, 부인 이씨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 다음과 같이 급히 상경하도록 요청하였다.

“지난번에 형님이 오는 길에 적어 보내신 편지를 보았소. 그동안 일절 소식 없사오니, 부모님 모시고 안녕하시오? 적정이오며, 여기는 그 사이 아버님이 병고로 대단히 불편하게 지내오시더니 수일 전부터 조금 나아지셨소. 근무하시는 남영으로 오늘 복귀하셨으나 여전히 평안하지 못하오신데 반나절 근무이기는 하지만 염려가 되어 계속 마음이 쓰이오. 남성(南城)에서는 좌랑댁(佐郞宅)이 어제 순산하시고, 아들을 낳으시니 이런 경사가 없소. 산후도 탈이 없다 하오니 기쁘오. 나는 이때까지 (독감이) 낫지 못하옵고, 일전에 겸보덕(세자시강원의 정3품 벼슬)이 되었는데, 아직 숙사(肅謝, 숙배와 사은. 정숙하게 사례함)도 하지 못하고 황송하오. 처음에는 당신을 다음달 초순(來初)이나 오게 하자 하였더니, 아무래도 집안일이 말이 아니어서, 일시가 말이 아니 된다고, 집안 어른이 인마(人馬)를 어서 보내야 어서 오는 것이 옳다고 하시기에, 인마는 내일 떠나보내도록 하오. 같이 오는 사람을 그곳 사람에게 부탁하게 하자 하였더니 윤서방 원량이 육친이니 배행(陪行)을 못할 수가 없다고 하여 보내니, 거기 (온양 처가의) 사람은 수고를 덜겠소. 계집종도 늦절이를 가게 하였소. 길이나 조심하여 오시도록 하오. 세세한 곡절은 오시면 아오. 일시가 말이 못 되오. 여러 댁들은 큰 연고는 없소. 잠시 적소. 무자 사월 십팔일 원춘(元春)”(김경순, 이하 한글 편지는 모두 김경순의 논문을 참조하여 읽기 쉽게 다소 수정함.)

이해 7월 부친 김노경은 평안감사가 되었다. 이 해 장동본가에서 부인에게 보낸 한글 편지는 모두 6통이었다.(장동본가에서 보낸 것이고 나머지 3통은 평양감영에서 보낸 것이다.)

1829년(44세, 순조 29년)

1월, 섭지선이 함께 옹방강의 손자 옹인달의 편지를 보내왔다. 옹인달은 김정희를

의부(義父)라 칭하고, 할아버지가 지은『經義攷補正』1부 등 서적을 보내왔다. 섭지선이 완원의 서적을 보내왔다.

내각 검교 대교 겸 시강원 보덕에 임명되었다. 4월, 평양 감영에서 친아버지 김노경을 모시고 있었다. 이 때 서울 장동 본가에 있는 부인에게 다음과 같은 한글 편지를 보냈다.

"지난번 편지는 들어갔습니까? 수일 일기가 화창하오니 여전히 들 잘 지내시고 위아래 다 잘 부양하오이까? 오늘 아이 돌이 되니 기특, 든든하오나 멀리 떨어져서 볼 길이 없으니 섭섭 결연하기 어찌 다 적소. 응당 독잡기는 잘 하였을 듯하오니 이렇게 궁금하옵기 한이 없오. 여기 평양에는 아버님 모시고 안녕하고 나는 여전히 잘 지내오. 먹기도 조금 낫고 형편이 서울보다 나아 지내오니 쾌히 효험이 있을까 하오. 사랑방 관리는 착실히 한다 하오? 서강(西江, 마포구에 있는 강)의 어른은 다시 아니 왔소? 이렇게 궁금한 마음이 가득하오.(이하 생략)"

이해 4월, 김정희는 평양감영에서 장동 본가에 있는 부인에게 2통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또 평양 고구려 성벽의 석각을 발견하였다. 내각검교대교 겸 시강원보덕에 재직하였다.

1830년(45세, 순조 30년)

이해, 청나라의 왕상생, 주위필, 김검, 이장욱 등으로부터 각종 서적과 먹, 불상, 차 그릇 등을 보내왔다. 김검은 김정희가 1, 2년내에 북경에 올 것이라 하는데 자신은 외임(外任)을 맡아 만나지 못할까 염려된다고 하였다.

6월에 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 10월에 윤상도의 옥사(獄事)로 친아버지 김노경이 고금도로 유배되어 위리안치(圍籬安置) 형을 받았다. 이일은 김정희가 일전에 파면했던 김우명이 일으킨 것으로 외척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사이의 세도싸움이 원인이었다.(김경순, 17쪽)

겨울에 북경의 옹인달이 방탕하고 서적상들이 일을 꾸며서 옹방강이 소장하였던 희귀 서적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다. 섭지선이 상을 당하여 북경을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1831년(46세, 순조 31년)

친아버지 김노경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꽹가리를 치며 격쟁(擊錚)을 하였다. (일설에는 1832년 2월 26일과 9월 10일 두 차례 격쟁을 하였다고 한다.) 격쟁이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이 지나가는 길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하소연을 하는 제도였다. 이해 11월, 재종형 김도희(金道喜)가 이조참판이 되었다. 이 달 한글 편지를 고금도에서 장동본가에 있는 예안 이씨 부인에게 보냈다.

1832년(47세, 순조 32년)

「예당금석과안록(禮堂金石過眼錄)」을 저술하였다. 부친이 다음해 귀양 3년 만에

풀려나와 판의금사로 복직하였다. 이해에 동지사 편을 통해서 완원의 둘째아들 완복(阮福)에게 편지를 보내고 완원을 위해서 쓴 <완씨가법(阮氏家法)>편액을 기증하였다. 다음해 3월, 신위, 대사간이 되었다. 9월 22일에 부친 김노경이 유배에서 풀려났다.

1834년(49세, 순조 34년)

「진흥이비고(眞興二碑攷)」를 지었다. 2월, 섭지선이 옹인달의 방탕과 옹방강 서재의 진귀한 서적과 물건들이 산일된 일, 그리고 오승량과 허내곡의 작고 소식, 북경 학예계의 동정 등을 담은 편지와 <화난석권(畵蘭石卷)>을 보내왔다. 11월, 순조가 사망했으며 헌종이 즉위하였다.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다음해 부친은 판의금부사가 되고, 김정희는 초의를 대둔산 일지암으로 찾아가 뵙고 공부를 하였다.

1836년 51세(헌종 2년)

2월 정약용이 사망했다. 향년 75세였다. 4월, 성균관 대사성(정3품)에 임명되었다. 조인영은 예조판서가 되었다. 김정희는 7월에 다시 병조참판이 되었다. 6월 약방제조 김노경이 파직되었다. 7월, 김정희는 병조참판이 되었다. 10월, 동지정사 신재식이 연경(북경)으로 출발하였다. 이상적이 그를 수행하였는데, 출발에 앞서 조인영, 권돈인, 김유근, 이지연 등이 송별회를 베풀고 송별시를 지었다. 이들 시는 김정희가 모두 자필로 써서 시첩(詩帖)으로 꾸몄다.

이중에 권돈인은 김정희와 평생을 친밀하게 지냈는데, 그 역시 그림과 글씨에 능했다. 그는 송학(宋學)에만 머물지 않고, 당시 청나라에서 유행하던 고증학, 금석학에도 관심을 가졌다. 김정희는 그의 뜻과 생각이 훌륭하다는 평을 하였고, 예서체(隷書體) 비문은 조선에는 그동안 없었던 신묘한 경지라는 칭찬을 하기도 하였다. 그도 역시 유작으로 <세한도(歲寒圖)>를 남겼는데, 그는 중국의 글씨와 그림을 얻으면 김정희와 함께 연구하였다.

11월,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다.

1837년 52세(헌종 3년)

1월, 북경의 왕희순이 신재식을 통해서 김정희의 편지를 받고 답장과 서책을 보내왔다. 3월, 생부 김노경의 상을 당했다. 향년 73세였다. 다음해 8월, 권돈인이 왕희순에게 긴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해외묵록(海外墨綠)』이라는 책으로 만들어졌다.

1839년 54세(헌종 5년)

5월, 형조 참판에 임명되었다. 6월 김우명이 대사간이 되었다. 이달 20일부터 한달 정도 김수철, 허련, 이한철, 등이 글씨와 그림을 배웠다. 이들이 쓴 글씨를 김정희가 품평한 내용을 전기(田琦)가 기록하여 「예림갑을록(藝林甲乙錄)」이 이루어졌다. 10

월, 조인영이 우의정이 되었다.

1840년 55세(헌종 6년)

6월, 동지부사에 임명되었으나, 9월, 10년 전 윤상도의 옥사(獄事)에 연루되어 예산의 고향집에서 체포되어 심문을 받았다. 부친은 소급하여 탄핵되었으며, 윤상도 부자는 능지처참을 당했다.

이일은 안동김씨 세력인 대사간 김우명과 대사헌 김홍근이 일을 꾸민 것으로, 당시 대권을 잡은 안동김씨 세력이 헌종의 외가인 풍양 조씨에게 혹시 세도를 빼앗길 것을 염려해 풍양 조씨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정적(政敵)인 추사 가문 세력을 제거하려한 것이었다.(김경순, 17쪽)

당시 친구였던 이재(彛齋) 권돈인(權敦仁, 1783-1859)은 형조판서였다. 김정희는 그에게 편지를 써서 "행실치고는 선대에 욕이 미치게 하는 것보다 더 추한 것이 없고, 그 다음은 몸에 형구가 채워지고 매를 맞아서 곤욕을 받는 것인데,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였네. 40일 동안 이와 같은 참상을 겪었네."라고 하였다. 이때 풍양 조씨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우의정으로 있던 친구 조인영(趙寅永)의 상소로 목숨을 구하고, 제주도 대정현(大靜縣)에 위배되어 위리안치(탱자나무 울타리에 갇히는 형) 되었다. 이후 제주도로 옮겨 1848년까지 유배생활을 보냈다. 유배가는 길(일설에는 유배가 끝나고 귀향하는 길)에 그는 남원에서 <모질도(耄耋圖)>를 그렸다.

이해 10월 중에 김정희는 제주도에서 예산에 있는 부인에게 한글 편지 3통을 보냈다. 12월에 순헌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헌종이 14세로 친정을 시작했다.

추사 김정희의 <모질도>

이해 10월, 김정희는 부인에게 다음과 같은 한글 편지를 썼다.

“어느덧 겨울이 되었소. 편안이들 잘 지내시오? 경향(京鄕, 서울)에서 다 여전히 무고하오? 천안(天安)에서 당신 모양을 보니 그렇지 아니할 것으로 아오나, 당신이 그렇게 하여 큰 병이 나면 말이 되겠소? 지금 당장은 모든 일에 집안사람들이 편안들 하고 당신도 더욱 아들 상우(商佑)를 돌아보아 전보다 더 보전하여야 이 천리 떨어진 큰 바다 바깥에 있는 마음을 위로를 할 것이니, 매양 목전의 일만 생각마시고 널리 생각하고 크게 마음을 먹어 아무쪼록 편안이 지내도록 하오. 집안일이 지금은 더구나 당신께 다 달렸으니 응당 그런 도리는 아시려니와 걱정스러운 마음이 항상 가득하고 특별히 간절하여 이렇게 말씀을 구구히 하오. 강동(江東, 강동현감으로 있는 동생 김명회)의 모양도 말이 되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동안 돌아 간 후에는 어떠한지 심장과 간장이 에이는 듯하오. 먹음새나 착실히 하여 병이 회복되도록 마음이 잊혀 지지 않고 염려되오. 나는 천리를 무사히 와서 또 천리 대해를 지난 달 이십칠일에 하루 사이에 쉽게 건너오니, 모든 것이 왕명 아닌 것이 없소. 허나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은 모두 배 멀미를 하여 정신을 잃어 종일들 굶어 지내되 나 혼자

배 멀미도 하지 아니하고 선상(船上)에 종일 바람을 맞으며 앉아 여전히 밥도 잘 먹었소. 그 전에는 물에 만 밥을 먹어 왔는데 선상에서 된밥을 평시와 같이 먹으니 그도 아니 이상하오? 대저 나 혼자 괜찮다 말씀할 것이 아니오라, 아무래도 그 큰 바다는 사람 사람마다 건너오리라 하고 권하여 올 길이 없는데 오니, 행여 아들놈 같은 아이들이 아무 철도 모르고 망상(妄想)을 하게 될지 모르니 미리 그렇게 알아 차리게 하오. 초하루 날에 대정 유배지에 오니 집은 넉넉히 몸 둘만한 곳을 얻어 한 칸 방에 마루 있고 집이 깨끗하여 별로 도배도 할 것 없이 들었사오니 오히려 지나친 듯하오. 음식을 먹는 것은 아직은 가지고 온 반찬이 있으니 어찌 견뎌 갈 것이오. 싱싱한 전복이 나오는 곳이오니 그것으로 또 견딜 듯하오. 쇠고기는 매우 귀하나 혹 가다가 얻어먹을 도리도 있는가 보오. 아직은 두서를 정하지 못하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김정희는 동생 김명회의 건강을 몹시 걱정했는데 유배지에서 다음과 같은 한문 편지를 동생에게 쓴 적이 있다.

"이러한 때에 모두 별일이 없고 사촌 형님께서는 기운이 또한 안녕하시며, 서울과 시골의 모든 형편이 한가지로 평상대로 잘되어 가고, 여러 누이들과 서모께서도 모두 잘 계시는가. 자네와 막내아우의 몰골이 시커멓고 삐쩍 말랐었기에 꼭 병이 날 것 같아서 걱정이니, 간혹 억지로라도 밥을 더 먹도록 노력하고 약을 쓰도록 노력하여, 이 바다 밖에서 한마음으로 애태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조금이라도 펼 수 있게 하기를 마음속으로 천만 번 기도하고 있네. 막내아우가 며칠 사이에 묘막에 간다고 하였던데 과연 틈을 내어 모일 수 있었는가. 보면 끝이 없고 생각하면 아찔아찔하며, 바다 끝은 하늘에 맞닿아 아득하니 아마 서로 연락할 수가 없을 것 같네"(김봉옥, 15쪽 참조)

또 동생의 병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서신을 써 보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손발이 찬 병의 증세가 끝내 쾌히 떨어지지 않는다 하니 매우 걱정이 되네. 복용하던 약과 음식을 한 번 더 전의 처방대로 계속해서 시험하여 상태가 다시 어떠한가를 보도록 하시게. 나무의 기(木氣, 즉 봄)가 왕성한 때에는 더욱 마땅히 조심하여야 하니, 다시 더 더치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좋아질 것일세. 먹고 마시는 것과 자고 깨는 것이 모두 편안한가. 멀리 밖에서 그리워 애태우는 마음은 한 시각을 떠나지 않고 치달리고 있을 뿐일세. 이달 들어서면서부터 때 없이 슬퍼지나 크게 생각하고 참고 있네."(김봉옥, 16쪽)

1841년 56세(헌종 7년)

윤3월 20일, 유배지에서 부인 이씨에게 다음과 같이 한글 편지를 보냈다.

"……(가족들 안부를 묻고) 당신은 이 사이 어떠하오? 괜찮다 하오나 괜찮을 리가 있소? 아마 먼 데 사람이라고 속이는 듯하오며 좁쌀미음은 계속해서 자시오? 당신

이 몸을 보호하여 가는 것이 날 보호하여 주는 것이오니 그렇게 아시오. (중략) 나는 살아있다 할 길이 없소. 여기 지내는 모양은 여전히 별다른 병은 없사오나, 모질게 참는 일을 어찌 다 이르오며 먹는 것도 그 모양이오니 그럭저럭 견뎌 가오. 모처럼 애써서 해 보낸 찬물(饌物, 반찬 재료)은 마른 것 외에는 다 상하여 먹을 길이 없소. 약식 인절미가 아깝소. 빨리 와도 원래대로 온전히 오기 어려운데 일곱 달 만에도 오고 빨라야 두어 달 만에 오는 것이 어찌 원래대로 온전히 올까 보오. 서울서 보낸 김치는 모두 소금을 과하게 넣어 담은 것이라 맛이 변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김치에 주린 입이라 견뎌 먹었소. 새우젓은 맛이 변하고 조기젓과 고추장 볶은 것이 맛이 변하지 않았으니 이상하오. 민어(民魚)와 소금에 절여 만든 육포는 괜찮소. 소금에 절인 생선 알 같은 것이나 그 부근에서 구하기 쉽거든 구하여 보내주오. 산채는 더러 있으나 본디 여기 사람은 순전 먹지 아니하오니 이상한 풍속이오. 고사리, 소리쟁이와 두릅은 있기에 혹 얻어먹소. 도무지 시장과 상점이 없어 모든 것이 매매가 없사오니 있어도 모르고 얻어먹기 어렵소. 의복은 조정에서 세초선(歲初船, 해마다 6월과 12월에 이조와 병조에서 죄가 있는 벼슬아치 동태를 적어 임금에게 보고하기 위해 제주도를 왕래하는 선박)으로 보내신 것들은 모두 기로(耆老, 나이가 많은 노인)의 것이니 오히려 웃소. 도로 보낼 길도 없고 모두 당분간 두었사오며 양재완 편에 온 의복은 여름에 입는 베옷까지 왔으니 아직 대어 입을까 하오. 지금 입는 저고리가 마침 하나를 가지고 입고 있으니 지나치게 더럽고 더러 해어져 입기 어려우나 다른 사람 것을 바꾸어 입기 어렵고 조금 어려우나 견디오. 가을에 이르러하나 해서 보내도록 하오. 그것도 미리 부쳐야 때에 맞춰 입지 그렇지 못하면 깊은 겨울이 될 염려가 있소. 껴입는 긴팔 등거리도 하나 해서 보내도록 하오.……”

4월 20일경에 부인에게 또 이런 편지를 보냈다.

“양재완의 노비 박한의 편으로 보낸 편지는 응당 그 사이에 보셨을 듯하오나 매번 인편 왕래가 지속(持續)을 이루지 못하오니 거기서 오죽 기다렸소? 지난달 음력 초열흘께 서울서 편지 부친 것을 이 달 초팔일에야 보니 삼십일 동안이오나 오히려 최근의 편지라 거기 편지들은 못 보나 대강 여전하다는 소식은 듣고 위로되오. 요사이 점점 여름이 되어 가오니 모두들 평안이 지내시옵고 강동(江東, 강동에 있는 동생 명희)의 요통은 어떠하온지, 조금 나은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걱정으로 마음만 불안하오. 경향에서도 그동안 다 별고 없이들 지내오? 가지가지 염려되며 당신은 요사이도 좁쌀미음은 자시오? 나는 아직 전과 같이 지내오나 수일 담(痰) 덩어리로 거북하더니 몸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여 조금 낫소. 강경의 배가 이 달 초팔일에야 들어와서 정월에 부친 새로운 반찬들은 자세히(정확히) 잘 받았소. 자연히 맛이 변한 것은 어찌하겠소? 그러하되 못 먹지는 아니하게 되니 다행이오. 인절미는 모두 썩어 버렸소.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니 후에는 부질없는 것을 수고 들여 만들어 보내봐야 낭비만 되니 어쩌겠소? 장으로 만든 것은 그렇게 괜찮으

나 오이장아찌는 괜찮고 무장아찌는 또 맛이 변했소. 젓 무우는 조금 시었으나 먹겠소. 겨울에 벗은 옷을 올려 보내오니 진작 또 고쳐 보내셔야 되겠소. 여기는 겨울 것을 여름에 유의하여야 이르겠소. 바지는 무명것 고쳐 보내고 명주 바지는 보내지 마오. 여기 두껍고 누르스름한 명주 바지가 하나 있는데 조금 두껍기에 입지 아니하고 당분간 두었소. 두루마기나 둘 다 고쳐 보내오. 무명 두루마기가 나쁘지 아니하오니 잘 생각해서 하오. 소매 있는 두루마기는 내려 온 것이 그대로 다 있으니 다시 하여 보내지 마오. 여기서 종종 입는 것이 아니오니 여럿 부질없소. 차동(양자 들어간 큰집의 넷째 누님) 회갑 의복은 어찌하여 보내오. 막연히 걱정뿐이니 마음이 견디기 어렵소. 회갑 날 조반이나 하여 잡수시게 돈냥을 또 얻어 보내야 할 것이니 어찌 요량하오. 다소간 의논들 하여 하도록 하오. 인편 총총 대강 적소."(김경순, 195쪽.)

이해 6월 22일에 추사는 제주도에서 다시 부인 예안이씨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 여름이 다 지나고 입추가 되오니 요사이 사정은 어떠하시오? 경향(서울)에서들 모두 한결 같이 평안하오? 강동의 동생은 여름을 어찌 지났소? 가지가지 염려뿐이오며 당신은 병환이나 자주 나지 아니하셨소? 그 사이 차동 회갑이 지났으니 천리 해외에 이런 정리(情理)가 없고 소식도 알 길이 없사오니 한 세상이 아닌 듯하오. 의복은 어떻게 하여 보내었소? 그 날 여러 누님네가 모여 지내셨다 하오? 나는 갑자기 학질을 얻어 나았다가 또 앓고 또 앓고 하기 여러 번 하여 석 달을 이렇게 고생하니 자연 원기는 지치고 먹지 못하고 회복이 결국 되지 못하오니 가을바람이나 나면 조금 낫고 먹기가 좋아진 뒤에는 회복도 될 듯하오니 함부로 신경을 쓰겠소? 서울서 내려 온 장맛이 다 소금 꽃이 피어 쓰고 짜서 가뜩이나 좋지 못한 비위를 불안하게 하오니 일시가 민망하오. 경향(서울)의 장이 어찌 되었는지 빠른 편을 얻어 내려 보내어야 견디겠소. 서울서 진장(陳醬, 검정콩으로 쑨 메주로 담가 만든 진간장)을 살 도리가 있으면 다소간 사 보내도록 하여 주오. 변변치 아니한 진장은 얻어 보내어도 부질없소. 거기 윤생(尹生)에게 진장이 요사이도 있는지 물어 보오. 민어를 연하고 도톰한 것으로 가려서 사서 보내도록 하오. 내려 온 것은 살이 세어 먹을 길이 없더이다. 겨자는 수확한 것이 있을 것이니 넉넉히 얻어 보내오. 밖으로도 기별하였소. 가을 후에 좋은 것으로 사오. 접이 되나 못 되나 선편에 부치고 절인 생선알도 거기서 먹을 만한 것 구하여 보내오. 겨우 두어 자 이렇게 적사오니 대강 보시고 기별 외라도 생각하여 하도록 하오."

다음 편지에서 추사는 서울에서 보낸 음식물들에 대해서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이번에 보내오신 반찬들은 그 수(數)에 맞게 왔소. 민어와 조기 머리에 약간 상처가 있아오나 못 먹게 되지 아니하여 병든 몸에 입맛이 조금 돌아왔소. 절인 생선알도 빨리 와서 쾌히 입맛이 붙으니 다행이오. 이번에 온 진장이 집의 것이오? 종

시 소금 맛이 지나쳐서 쓴맛이 나고 단맛이 없사오니 그 전에 온 장이 가루메주로 담근 장으로 다 그러하여 먹을 길이 어렵사오니 서울도 그 말 하였거니와 조금 단맛 있는 간장을 살지라도 조금 얻어 보내도록 하오. 잣과 호도가 여기는 없는 것이오니 얻어 보내도록 하옵고 좋은 곶감이 거기서는 얻기 어렵지 아니할 듯하오니 배편에 4, 5접 얻어 보내어 주오. 해수(咳嗽, 해소라고도 함. 기침을 심하게 하는 병. 특히 기침이 오래 지속되면서 기침과 가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함.)에는 매양 구급이 되기에 이렇게 기별하오. 올해도 김치와 젓무우를 하여 부치도록 하오. 김치는 그렇게 아니하면 겨울철 석달을 얻어먹지 못하오니 아주 보낼 그릇에 담아 보내도록 하오. 어찌 떠나면 또 변하오. 인편도 총총하여 겨우 그리오. 생각지 못하는 것 생각하여서 기별 외라도 생각하오. 이번 절인 생선 알이 그 즈음에는 종종 나는 것이오니 구하여 보오."

이해 김정희는 이러한 한글 편지를 제주도에서 예산에 있는 부인에게 8통을 보냈다. 4월에 친구 조인영이 영의정이 되었다. 이 해에, 상무(商懋)를 양자로 들였다.

1842년 57세(헌종 8년)

이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글 편지 8통을 제주도에서 예산에 있는 부인에게 보냈다. 부인이 조금씩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마지막 편지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가까이서 자세히 알 수 없는 자신의 저치를 안타까워했다. 11월 13일 예안 이씨가 사망했다. 부인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 유배생활 3년째 되는 해였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유배지에서 아내에게 쓰는 만사(配所輓妻喪)

聊將月老訴冥府 명부의 월하노인에게 하소연해서
來世夫妻易地爲 내세에는 우리 부부가 바꿔 태어나
我死君生千里外 내가 먼저 죽고 그대가 천리 밖에 살아
使君知有此心悲 그대가 이 마음의 슬픔을 알게 하리라

또 그는 상복을 갖추어 입고 통곡을 하며 다음과 같이 「부인 예안이씨 애서문(夫人禮安李氏哀逝文)」을 지었다.

"임인년 11월 을사삭(乙巳朔) 13일(정사)에 부인이 예산(禮山)의 추사(楸舍)에서 일생을 마쳤다. 다음 달 을해삭(乙亥朔) 15일(기축)의 저녁에야 비로소 부고가 해상(海上)에 전해 왔다.

그래서 남편(夫) 김정희는 위폐를 세우고 곡을 하고 살아서 헤어짐(生離)과 죽어서 헤어짐(死別)을 비참히 여기며 영영 가서 돌이킬 수 없음을 느끼면서 두어 줄의 글을 엮어 본집으로 부친다. 이 글이 당도하는 날 그 궤전(饋奠, 염습하고 나서 장사를 지낼 때까지 아침저녁으로 신위神位앞에 올리는 제물)을 따라 영괘(靈几, 영

전)의 앞에 고하도록 하는 바이다.

아아! 나는 항양(桁楊, 죄인의 목에 씌우는 칼과 발에 채우는 차꼬)이 앞에 있고 영해(嶺海, 귀양가는 길의 봉우리와 바다)가 뒤에 따를 적에도 일찍이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지금 한 부인의 상을 당해서는 놀라고 울렁거리고 얼이 빠지고 혼이 달아나서 아무리 마음을 붙들어 매자도 길이 없으니 이는 어인 까닭인지요.

아아! 무릇 사람이 다 죽어갈망정 유독 부인만은 죽어가서는 안 될 처지가 아니겠소.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될 처지인데도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도 지극한 슬픔을 머금고 더 없는 원한을 품어서 장차 뿜으면 무지개가 되고 맺히면 우박이 되어 족히 남편 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이 항양보다 영해보다 더욱더 심했던 게 아니겠소.

아아! 삼십 년 동안 그 효와 그 덕은 집안사람들이 모두 일컬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바깥사람들까지도 다 느껴 칭송하지 않는 자가 없었소. 그렇지만 이는 사람의 도리상 당연한 일이라 하여 부인은 즐겨 받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었소. 그러나 나 자신은 어찌 잊을 수 있겠소.

예전에 나는 장난으로 말하기를 "부인이 만약 죽는다면 내가 먼저 죽는 것이 도리어 낫지 않겠소."라고 했더니, 부인은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 크게 놀라 곧장 귀를 가리고 멀리 달아나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요. 이는 진실로 세속의 부녀들이 크게 꺼리는 대목이지만 그 실상을 따져보면 이와 같아서 내 말이 다 희롱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었소.

지금 끝내 부인이 먼저 죽고 말았으니 먼저 죽어가는 것이 무엇이 유쾌하고 만족스러워서 나로 하여금 두 눈만 뻔히 뜨고 홀로 살게 한단 말이오. 푸른 바다와 같이 긴 하늘과 같이 나의 한은 다함이 없을 따름이오."

11월 11일 우의정으로 임명된 친구 권돈인으로부터 부인상을 위로하고 건강을 당부하는 편지가 왔다. 하인 봉진(鳳鎭)에게 상여가 예산으로 향하고 있음을 들었다고 한다.(권돈인, 『彛阮尺辭』「夜經急癨」)

김정희는 11월 14일, 부인이 이미 하루 전에 사망하였는데도, 유배지 제주도에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부인 이씨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어느덧 동지가 바짝 다가와 있는데, 병으로 편안치 못함이 어떠하시오? 그 증세가 갑자기 없어지게 하기 어렵사오나 그 동안 (병세의) 가감(加減) 동정이 어떠하시고 벌써 석 달이 넘었사오니 원기가 얼마나 상하여 계시는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마음만 초조하여 어찌할 길이 없소. 침식 등 온갖 일은 어떠하오? 그 동안은 무슨 약을 잡수시며 아주 고통이 심하여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오? 간절한 마음이 갈수록 가만히 있지 못하겠소. 강동(江東)의 동생은 요사이 어떠하오며 추운 계절을 당하여 지병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작할 듯하오니 가지가지 염려가 마음에 잊혀지지 않고 염려되옵고 어린 아이들은 별고나 다시없는지요. 나는 아직 마찬가지 모양이오나 피부병으로 가려움증이 지금까지 낫지 못하여 밤을 매양

새우게 되니 가뜩이나 변변치 아니한 잠을 더구나 못 자고 실로 어렵사오나 먹고 마시는 일은 특별히 못하지 아니하오니 견뎌 가오. 당신 병환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온종일 불안한 마음에 걱정이 그치지 않소. 소식까지 자주 듣지 못하니 더욱 마음이 조급하고 가슴이 답답하여, 불이 이글거리듯 못견뎌들 하오. 하인들은 다 마찬가지이오니 다행이오. 식사도 겨울 들어 고기도 얻어서 맛보니 그럭저럭 하여 이 겨울은 또 무사히 넘길 듯하오. 인편이 너무 없기에 제주 성에나 무슨 인편이 있을지 대강 두어 자 안부만 이렇게 부치오니 쾌히 평복이 되신 소식 이렇게 날로 기다리오. 그 사이 경초선(京抄船)편으로 응당 무엇이나 부치셨을 듯하오나 병환 중 심려되셨을 일 이렇게 걱정이오며 서울서들은 어찌들 지내고 미동(渼洞, 서울 의주로, 충정로, 미근동 등 지역)에서 겨울철을 당하여 오직 하시랴 잊혀질 길이 없소. 어깨 통증은 여전히 고통스러워 겨우 이렇게 그리오. 임인(1842년) 지월(11월) 십사일 상장. 당신의 생일이 아주 가까워오니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실 일 멀리서 생각뿐이오."

이로부터 4일이 지난 18일에 김정희는 다시 추가로 편지를 보냈다.

"전편 편지 부친 것이 인편에 함께 갈 듯하오며 그 사이 새 현감이 오는 편에 보낸 상회(永柔)의 편지를 보니 그 사이 계속 변환을 떼지 못하시고 여전히 힘드나 보오. 벌써 여러 달을 병에 들어 있어서 근력이 여기저기 오죽하여 계시겠소? 샤향으로 만든 탕약을 자시나 보니, 그 약에나 쾌히 동정(動靜)이 계실지, 멀리 바깥에서 심려가 초조함을 무어라 형용하지 못하겠소. 나는 지난번 보년 글과 마찬가지며 그저 가려움증으로 못 견디겠소. 갑쇠(하인 이름)을 아니 보낼 길이 없어 이렇게 보내오나 그가 가는 모양이 몹시 슬프니 객지에 있는 중에 또 한층 마음을 안정치 못하겠소. 급히 떠나보내기에 다른 사연 길게 못하오. 임인 지월 십팔일 상장"

김정희는 이 때 무언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 하인 편으로 편지를 들려 보냈다. 부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나 그 소식은 듣지 못하고 유배지에서 부인의 병환을 걱정하는 마음이 절절하다.

장례가 끝나고 종형 김교희에게 김정희는 다음과 같이 서신을 보냈다.

"초상이 난 때로부터 졸곡(卒哭)까지 때에 맞았다 하니 다행한 일입니다. 널의 재료를 그곳에서 가져다 썼다 하는데 분수에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널두께가 세 치라서 쉽게 썩으면 어때서 무엇 하러 몇 해를 두고 만든 것에서 얻어 썼답니까? 무덤은 어느 곳에 쓰고, 장사는 어느 날로 정하는지, 막연히 관계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논두렁 보듯 하였습니다. 홀아비가 되어 홀로 사는 것은 뒤에 죽는 책임을 지려 한 것이거늘 이를 할 수가 없었으니 이 어찌 살아서 세상에 있는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순히 타일러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감히 지키어 경계하지 못하고 구차스럽게 정신을 상하게 하니 역시 장자의 달관에는 이르지 못하는가 봅니다."(김봉옥, 24쪽)

1843년 58세(헌종 9년)

이상적이 1월에 북경에서 계복(桂復)의『만학집(晩學集)』등 책을 구해 제주도 유배지로 보내주었다. 2월에 사촌현 김교희가 사망했다. 허유(許維, 허련)가 대둔사에 있다가 제주목사 이용현의 막하로 들어가 제주도 유배처를 왕래하였다. 8월, 왕비 안동 김씨가 사망했다. 10월, 예산에 있는 며느리에게 한글로 편지를 썼다. 10월, 친구 권돈인이 좌의정이 되고, 김도희가 우의정이 되었다.

이즈음 초의(草衣)선사가 유배지에 왔다. 김정희는 일찍부터 불교에 관심이 있었으며, 백파(白坡)와 초의 등 당시 고승들과 친하게 지내고 많은 불경을 섭렵하여 해동의 유마거사라고 불릴 정도로 불교 교리에 밝았다. 초의는 제주도에서 반년 동안 김정희와 함께 지내며 시를 주고받으면서 아내를 잃은 슬픔과 유배지의 우울함을 달래주었다.

제자 허유(허련)이 그린 <완당선생해천일립상(阮堂先生海天一笠像)>

1844년 59세(헌종 10년)

1월, 이상적이『황조경세문편』120권을 구하여 보내왔다. 3월, 며느리에게 한글 편지를 보냈다. 봄에 허유가 다시 육지로 돌아갔다.

여름, 이상적에게 <세한도(歲寒圖)>를 그려주었다. <세한도>에는 그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적혀 있다. "지난해도 만학집, 대운집을 보내주더니 변함없이 또 책을 보내주었구나. 세상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 붙잡고 늘어지기 바쁜데 나처럼 외로운 처지를, 이전이라고 더한 것 없고 지금이라고 덜한 것 없으니, 공자님 말씀이 '날이 차가워진 다음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늦게까지 푸르다는 것을 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고 하였는데, 네 마음이 그렇구나. 아, 쓸쓸한 마음이여. 완당 노인이 쓰다."

다음해 권돈인이 영의정이 되었다. 이상적은 북경에서 식사에 초대된 자리에서 김정희가 그려준 <세한도>를 중국의 명사들에게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글(題辭)을 받아왔다. 5월, 청나라 유학자 이조망(李祖望)이 김정희의 학예관을 듣고 이에 대한 소견을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었다.

1846년 61세(헌종 12년)

6월, 유배지에서 회갑을 맞이했다. <화엄사 상량문>을 지었다. <무량수각(無量壽

閣)>, <시경루(詩境樓)> 편액을 썼다. 다음해 봄 허유(허련)가 세 번째로 제주도에 왔다.

1848년 63세(헌종 14년)

동생 김명희(金命喜, 1788~1857)가 회갑을 맞이했다. 8월 신관호가 허유에게 서신을 보내 김정희의 글씨를 가지고 상경, 입궐하라는 왕명을 전했다. 이해 12월, 제주도 유배에서 8년 만에 풀려났다.

환갑을 맞이한 동생 김명희에게 제주도 유배지에서 김정희는 다음과 같이 한문 편지를 써 보냈다.

"앞서 본주(제주도) 관청의 공문편에 글을 보냈는데 과연 언제 도착되었는가. 시절이 가을이니 자네 환갑이 돌아왔네 그려. 우리 모두 살 만큼 다 살았으니 어찌 족히 보통으로 기뻐하고 경사스럽게 여기며 드날리겠는가. 또 하물며 이런 때를 당하여서랴! 다만 막내아우가 잔치와 술을 차려 오래 사는 늙은이들을 먹이고 큰 술잔으로 축하하리니 또한 어찌 그 마음을 막겠는가? 역시 구부리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네. 이 바다 밖은 돌아보니 아득하여 서로 오가지 못할 듯하니 문득 사무쳐 오는 정리(情理)가 어떻겠는가? 혹시 한 가지가 부족하여 집안에서 즐겁게 모여 노는데 흥이나 되지 않는지 모르겠네. 또한 거듭 내 처지를 생각한다면 하늘 끝이 모두 한 집안이니 이 몸이 날마다 같이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만 원하는 것은 우리 형제가 화목하여 덕을 쌓으며 오래 사는 것뿐인데, 어찌 영원토록 끝없이 누릴 수야 있겠는가. 길한 일에는 상서로움이 있기 마련이니 역시 이에 조짐이 나타나는 것뿐인가 보네."(김봉옥, 17쪽)

막내 동생 상희에게도 그는 이렇게 편지를 썼다.

"비록 이곳이 험하고 곤궁하게 막히었다 하나 역시 성상(聖上, 임금)의 덕화(德化, 교화)가 태양처럼 미치는 데서 빠지지는 않으리니, 가만히 마음속으로 축원하는 것은 거듭 식구끼리 모이는 즐거움을 가지도록 하소서 하는 것뿐일세. 둘째 아우의 환갑이 또 다음에 돌아올 터인데, 머리 센 형제들이 즐겁게 모일 수 있을까?"(김봉옥, 17쪽)

1849년 64세(헌종 15년)

1월, 서울로 돌아와 강상에 머물렀다. 6월에 헌종이 사망했다. 철종이 추대되고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7월에 신관호가 유배되었다. 여름에 제자들의 서화수련을 지도하였다. 10월에 북경에서 완원이 86세로 사망했다.

다음해 10월에 김덕희(金德喜)가 연행되고, 12월에 친구 조인영이 사망했다. 향년 69세였다.

1851년 66세(철종 2년)

6월 양아들 상무의 처 풍천 임씨가 40세로 사망했다. 7월에 홍문관 교리 김회명(金會明)이 상소를 하여 절친한 친구 권돈인의 진종조천론(眞宗祧遷論)의 배후자로 지목되어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었다. 동생 김명희와 김상희도 축출되었다.

헌종이 사망한 뒤에 천묘(遷墓)의 예론으로 제기된 진종조천론(眞宗祧遷論)은 철종의 증조인 진종의 조천례(祧遷禮, 신주를 옮기는 예)에 관한 주장으로 권돈인은 파직당하여 순흥으로 유배되었다. 예론이 권력투쟁에 이용된 것이다. 덕분에 김정희는 김회명(金會明)의 상소로 비판을 받고 유배의 형까지 받게 된 것이다.

당시 영의정까지 지낸 권돈인의 자는 경희(景羲), 호는 이재(彛齋)·우랑(又閬)·우염(又髯)·번상촌장(樊上村庄) 또는 과지초당노인(瓜地草堂老人)이고,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우의정을 지낸 권상하(權尙夏)의 5대손이며, 군수 권중집(權中緝)의 아들이다.

권돈인이 그린 세한도, 오른 쪽 그림제목은 추사의 글씨.

1852년 67세(철종 3년)

전년 12월 28일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거두었다. 2월과 4월에 신관호는 유배지에서 옮겨졌으며, 8월에 북청 유배에서 풀려났다. 권돈인도 이때 유배지에서 풀려났다. 10월에 과천 과지초당(瓜地草堂)에 도착하였다. 안동 김씨들이 여전히 권세를 잡고 있어서 부친 김노경의 묘가 있는 관악산 아래 과천으로 간 것이다. 이때부터 봉은사를 내왕하면서 글씨를 쓰면서 후학을 가르쳤다.

1855년 70세(철종 6년)

과천의 과지초당에 은거하면서 후학을 지도하였다. 허유가 과천으로 찾아왔다. 「백파율사비(白坡律師碑)」를 짓고 글씨를 썼다. '백파(白坡)'는 초의선사가 소개한 승려로 백파선사(白坡禪師) 긍선(兢璇, 1767~1852)을 말한다. 백파는 선승으로 전주이씨이며, 법호는 백파(白坡), 법명은 긍선이다. 전라도 무장(茂長) 출생으로, 12세에 출가하여 선은사(禪隱寺) 시헌(詩憲), 연곡(蓮谷), 상언(尙彦)등에게 배우고 구족계를 받았다. 그는 충청도 운문사에서 선법으로 이름을 크게 떨쳤으며, 호남선백(湖南禪伯)으로 불렸다. 특히 계율, 화엄과 참선의 정수를 모두 갖춘 거장으로 알려졌으며 김정희도 그를 높이 평가하고, 교류를 하였으며 초상화를 그려준 뒤에 그를 '해동의

달마(達磨)'라고 칭찬하였다.

1856년 71세(철종 7년)

이즈음 봉은사에 기거하였다. 10월 7일에 봉은사 판전(板殿) 현판을 쓰고 3일이 지난 10일에 과천 과지초당에서 사망하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글은 다음과 같다.

"大烹豆腐瓜薑菜, 高會夫妻兒女孫, 春風大雅能容物 秋水文章不染塵.

(두부와 오이, 나물이 있으면 최고의 진수성찬이요, 부부와 아들, 딸, 손자가 있으면 최고의 모임이라네. 봄바람처럼 큰마음은 만물을 허용하고, 가을 비 같은 맑은 문장은 티끌에 더러워지지 않는다네.)"

봉은사의 판전, 추사가 사망하기 3일전에 쓴 현판 글씨

『철종실록』 8권에'철종 7년 10월 10일 갑오 3번째기사'로「전 참판 김정희의 졸기(卒記, 사망기사)」가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전 참판 김정희가 사망했다. 김정희는 이조판서 김노경의 아들로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나 여러 가지 책을 널리 읽었다. 금석문(金石文)과 그림, 그리고 역사에 깊이 통달해서 초서, 전서, 예서를 잘 쓰고, 참다운 경지를 신묘하게 깨달았다. 때로는 가끔 거리낌 없는 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비판할 수 없었다. 그의 작은 아우 김명희와 더불어 사이좋게 서로 화답하며 홀연히 당대의 대가가 되었다. 젊어서 영특한 이름을 드날렸으나 중도에 집안의 화를 만나 남쪽으로 귀양 가고 북쪽으로 유배 가서 온갖 풍상을 다 겪었다. 혹은 세상의 쓰임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세상의 버림을 받기도 하였다.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했으니 세상 사람

들은 그를 일러 송나라의 소동파와 같다고 한다.(前參判金正喜卒. 正喜, 吏判魯敬子, 聰明强記, 博洽群書, 金石圖史, 窮徹蘊奧, 艸、楷、篆、隷, 妙悟眞境. 時或行其所無事, 而人不得以雌黃. 與其仲弟命喜, 塤篪相和, 蔚然爲當世之鴻匠. 早歲蜚英, 中罹家禍, 南竄北謫, 備經風霜, 用舍行止, 世或比之於有宋之蘇軾.)”

다음해 1월에 신관호가 유배에서 풀려났으며, 4월에 부친 김노경이 복관(復官)되었다. 월에 김정희는 사면되고 복관되었으며, 10월에 추사 영실에 초상화가 봉안되었다.

김정희가 사망하고 8개월 쯤 지난 뒤에, 친구 권돈인이 찾아와 그의 위패를 모시는 영실을 만들고 초상화를 그리게 해서 그곳에 안치하였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땅속에 있는 그대, 그대가 이제 명예를 찾게 됐는데 알겠는가?”라는 글을 써서 김정희의 아들에게 주고 갔다.

<참고문헌>

『철종실록』.「추사연보」, 추사박물관.

황수환,「김정희 연보」,『추사김정희의 사상과 추사체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2

유홍준,「추사 김정희, 그의 삶과 예술」, 164회 국민대학교 목요특강, 2002.5.23

김경순,『추사 김정희의 한글편지 연구』, 충남대대학원, 2013.8

김봉옥,『추사 김정희의 유배서간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